2011년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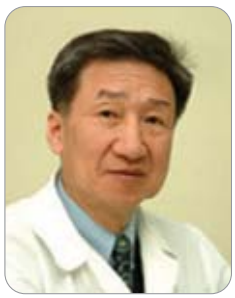
2011년 11월(통권 제17호)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소식

제호 :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소식 | **발행일** : 2011년 11월 | **발행인** : 이준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5-5번지 102호 (135-010)
TEL : (02) 512-5915 | FAX : (02) 512-5421 | www.ksgoc.or.kr | E-mail : gyncancer@gyncancer.or.kr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는 1984년 창립 이래 혁혁한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유명 국제적 학회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더욱이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많은 젊은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있기에 그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2년에는 학회 학술지인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JGO)가 SCI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학회로 거듭나게 되었고, 향후 대한 민국 부인종양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학회 산하 대한부인종양연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세계 유수 부인종양학 단체들과 교류하고 국제 공동 임상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에는 2nd Biennial Meeting of 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준비하여 범아시아적 주도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발전과 성과는 본 학회 회원님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예회장님들과 선배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풀어나가야 할 많은 도전 과제와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반 학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많은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에 걸맞지 않는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감히 다시 한 번 우리 회원님들이 대동단결하여 학회를 재정립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제 2의 도약을 위해 준비와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2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학회 발전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2일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회장 이준모

contents

2011년 11월(통권 제17호)

2 인사말

3 IPC 참관기

5 SGO 참관기

7 IGCS 참관기

9 AACR 참관기

10 SGO 참관기

11 OCCC 참관기

13 해외 연수기

14 논문의무제출자명단

15 17차 추계심포지움 프로그램/KGOG프로그램

16 ASGO 안내

17 부인종양 논문 의무 제출자 학술대상, 우수논문상 수상 내역

19 학회 회무보고

36 회원동정

37 2011년 주요 학회 일정

38 편집후기

39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26th International Papillomavirus Conference (IPC)를 다녀와서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김 찬 주

2010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캐나다의 Montreal에서 열린 제 26차 IPC를 다녀왔습니다. 이 도시는 캐나다 남동부 퀘백주에 있는 도시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세인트 로렌스강과 오타와 강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특이한 위치 덕분에 과거에는 캐나다 제일의 무역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전체 약 300만명의 인구 중 약 70%가 프랑스계로 도시의 이름 뿐만 아니라 곳곳의 지명이 프랑스 단어로 되어 있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몬트리올은 11월 중순부터는 거의 본격적인 겨울로 눈도 많이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몬트리올의 가장 좋은 시기인 7월초에 열리는 이 학회는 6월말부터 7월초에 열리는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발의 후반부와 맞물려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밤을 기대하며 긴 비행 시간을 참았습니다.

2009년 5월에 있었던 제 25차는 북유럽 스웨덴 Malme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에는 두 종류의 HPV 백신 즉 Cervarix와 Gardasil의 면역 원성과 안전성 비교가 발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2010년 7월의 제26차 IPC에서는 12개의 plenary lectures, 약 800편의 구연과 Poster발표, 9개의 satellite meeting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stimation of HPV clearance time and realted factors in Korea"란 제목의 포스터를 준비하여 갔습니다.

7월 3일부터 4일은 Public Health Workshop과 Clinical Workshop Programm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의 main conference 기간의 모든 구연과 Poster는 Basic Science, clinical science, public health and epidemiology, 개발도상국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4가지 session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본인은 7월 4일 오전 Chicago 경유를 하는 비행기로 오후에 Montreal에 도착하여 도착하였기 때문에 전혀 clinical work shop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먼저 출발하여 도착한 가톨릭의대 박종섭 교수님, 허수영 선생님과 서울 성모 병원의 임상 강사 이정원 선생님을 만나서 긴 비행시간에서 오는 불편감을 일단 '중국음식' 과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가라 앉힌 뒤 일찌감치 잠에 들었습니다.

2010년 7월 5일

학회가 열리는 "Palais des congress de Montreal"이라는 장소는 호텔에서 걸어서 약 3개정도의 신호를 지나야 하는 거리였지만 전날 렌트를 해 둔 예쁜 소형 승용차가 있어서 허수영 교수가 운전을 해주어 모두 함께 갔습니다. 학회의 첫날 오전 8시는 International Papiilomavirus Society의 회장인 Thomas R Broker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첫 Plenary Session의 연자로는 HPV백신 분야에서는 Canada Quebec의 Marc Brisson이 "Population-level effectiveness of HPV vaccination: impact of herd immunity", 미국 South California대학의 W. Martin Kast가

Fig 1. 제 26차 IPC 학회가 열렸던 "Palais des congress de Montreal" 건물의 앞쪽 전경

Fig 2. 제 26차 IPC 학회의 시작을 알리는 IPC회장인 Thomas R Broker와 main conference room.

Fig 3. Gala dinner가 열렸던 Windsor station에서 담소를 나누는 Thomas R Broker, 식약청의 박순희 박사, 질병 관리 본부 김성순 박사

Fig 4. 학회 돌아오는 길에 들린 New York에서 1870년에 지어진 Brooklyn Bridge 위에 서 있는 필자의 모습

"Therapeutic Vaccines for Chronic Infection and Cancer: Barriers and Hope" 미국 CDC의 Mona Saraiya가 "Evaluation of HPV Vaccine Programs"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점심시간에는 "Industry-Sponsored Symposia"로 Roche에서 "Dspelling the myth that all high-risk HPV genotypes are the same"라는 주제로 5명의 연자가 발표를 하였는데, 주 내용은 미국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액상세포검사(Liquid-based cytology)의 한계점과 HPV검사의 유용성 및 cobas 4800 HPV test라는 방법으로 12가지 고위험 HPV와 HPV-16, HP V-18형을 한 번의 검사로 날아내는 system의 필요성과 임상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6일 아침에는 최근 HPV Vaccine의 임상적 도입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HPV screening" 분야에서는 미국 NCI의 Philip E Castle이 "New Molecular Markers for Cervical cancer Screening :Distinguishing Hype and Hope"란 제목으로, 영국의 Jack Cuzick은 "Can HPV test become the primary screening modality?" 내용으로 흥미진진하게 이끌어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Industry-Sponsored Symposia로 "Merck Sharp & Dohme"사에서 "Outstanding scientific & public health issues in the HPV field"라는 큰 주제 밑에 성적으로 활발한 연령대의 여성에서 HPV Vaccination을 하게 되는 경우의 문제점과 호주에서 실재 "Gardasil"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자리 매김을 한 뒤 일어난 상황에 대한 보고 및 남성에 대한 Gardasil 예방접종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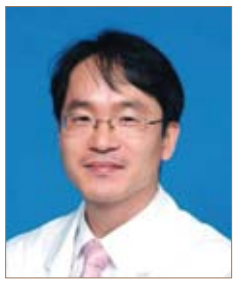
화요일 점심시간에 너무 관광할 시간도 없고 하여 학회장 근처의 가장 가까운 노트르담 대성당(Notre Dame Basilica)을 다녀오느라 사실 약간 강의를 놓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829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성당내부에 5,772개의 파이프로 만들어진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으로도 유명한 곳이며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에서 신비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2010년 7월 7일에는 "Plenary Session"이 "Natural History and Extragenital Infection"으로 영국의 John Doorbar는 "The natural history of papillomavirus disease; from silent and productive infections to neoplasia and latency" 미국 Seattle에서 온 Denise A Galloway는 "Current Knowledge and Gaps about HPV Natural History" 독일 Heidelberg에서 온 Magnus von Knebel Doeberitz는 "Molecular Basis of PV Oncogenecity"란 제목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Industry-Sponsored Symposia로 "GSK" 사에서 "Because Cervical Cancer Prevention Matters"란 제목하에 HPV Infection의 면역학적 특징과 이 부분인 Vaccine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독일 Heidelberg Lutz Gissmann이 발표를 하였으며, Cervarix의 최근 임상 2상과 3상 결과에 대한 정리 및 자궁 경부암 예방에 있어서 예방접종과 screening의 가치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Gala dinner는 7월 7일 저녁 7시부터 Windsor Station에서 있었습니다. 이 곳을 택시를 타고 내려서 보니 지하철역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이곳은 과거에 Canadian pacific railway (CP)의 중심부가 있던 역사적인 역사 건물로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빌딩은 1887년에 지어진 것으로 몬트리올의 가장 아름다운 빌딩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곳에서 IPS (International Papillomavirus Society) 회장인 Thomas R Broker, 한국에서 온 식약청의 박순희 박사, 질병 관리 본부 김성순 박사, CDC 중대 약대 김홍진 교수 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HPV 예방백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된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인 자궁 경부암 예방을 위한 여러 system 및 방안과 HPV 치료 백신을 향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들이 돋보이는 성대한 학회로 추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다양한 역할을 부인 종양학회 중심으로 펼쳐나가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41st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 March 14-17, 2010 Moscone West Convention Center, San Francisco, California



성균관의대 최 철 훈

이번에 참석한 SGO는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로 올해로 41회를 맞았다. 이번 2010년 SGO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3월 14-1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참석인 이번 SGO에서는 우리 일행이 3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일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였다.

2010년 3월 13일 출발 당일, 오후 4시에 출발하는 샌프란시스코 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김병기 선생님께서 갑자기 비자 문제로 출발하실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김병기 선생님은 비자 문제를 급히 해결하고 3일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셨다.

13일 오전 9시경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다른 일행과 같이 먼저 샌프란시스코 시내관광을 하기로 하였다. 금문교, 트윈픽스, 피어39, 알카트라즈 등 시내관광을 한 다음 피셔맨스와프에서 게요리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같이 참석하신 선생님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어 시차적응이 어렵지는 않았다.

14일 학회 첫날에 등록을 한 후 매번 각오하는 것이지만 싸지 않은 등록비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얻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할 내용으로는 포스터는 370개가 전시되고 있었으며 14-17일 사이에 61개의 연구결과로 plenary session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첫날 발표된 opening plenary session에는 5개의 초록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는 Mannel 등이 발표한 GOG 175의 결과로 초기난소암(Ia G3, IC, II)에서 3회의 Taxol/Carboplatin 투여 후, maintenance low-dose taxol (40mg/m2/wk x 24wk)의 효과를 본 3상연구인데,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였다. 두 번째 발표는 GOG 198의 결과로 biochemical-recurrent-only인 환자를 대상으로 thalidomide와 tamoxifen을 비교하였는데, thalidomide가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결과였다. 3번째는 platinum-sensitive 재발성 난소암에서 weekly docetaxel과 carboplatin의 병합요법이 두 약물의 sequential treatment 보다 무병생존율을 향상시켰다는 결과였다. Lesnock 등은 reduced expression of BRCA1 (IHC)이 stage III 난소암에서 흔히 발견되고 intraperitoneal cisplatin-based chemotherapy 환자군에서 보다 양호한 예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Norquist 등은 항암 치료 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BRCA1/2 mutation이 platinum resistance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눈에 띄는 큰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회 첫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후, 저녁에 SGO social event에 참석하였다. San Francisco Giant의 홈구장이고

Fig 4.

Fig 2.

배리본즈가 홈런을 쳐냈던 AT&T Park 야구장을 방문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여흥을 즐겼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야구장이 처음인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야구를 생활로써 즐기는 미국인들의 삶을 조금 느낄 수 있었다. 여흥이 지속되어 저녁 늦게까지 과음을 하였고 다음날 학회는 무거운 몸으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국물이 있는 한국음식점을 찾아 속을 달랬다.

16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선생님이 발표가 있었고, 유희석 선생님이 "validation study of new risk grouping criteria for postoperative treatment in stage IB cervical cancers without high-risk factors: Rethinking the Gynecologic Oncology Group criteria"란 제목으로 plenary session에서 발표하셨다. 또한 김희승 선생님이 Focused plenary-Cervix session 에 Limited benefit of neoadjuvant chemotherapy before surgery in FIGO stage IB-IIA cervical cancer: A case-control study and meta-analys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저녁에는 Korean night가 있었고 중국집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다. 강순범 이준모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셨고, 가벼운 음주 후 호텔로 돌아왔다.

17일 수요일, 학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참석한 첫경험이었고 뿌듯하였다. 아무튼 이날 일정은 오전으로 끝이 났고 오후는 자유시간이 되었다. 오후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케이블카를 탔으며 한적한 오후 시간을 시내에서 즐겼다. 학회 다음날에는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 못내 아쉬워 차를 렌트한 후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몬트레이, 17마일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무척 아름다웠다.

전 세계 부인종양학 의사들이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모였다가 또 다시 각자의 길로 떠났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내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가져보았다.

Fig 1.

13th Biennial Meeting of International GynecologicCancerSociety (IGCS) 참관기 Praha, Czech, October 23-26, 2010

부산의대 산부인과 서 동 수

Head of the state, mother of cities, City of hundred spires 등 여러 단어들로 표현되는 빨간 지붕의 도시 프라하. 다른 것 보다도 프라하라는 도시는 프라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와 좋겠다' 하는 느낌. 왠지 모를 낭만적인 도시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나 또한 지난번 방콕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 이후 다음 장소는 프라하라는 것을 보고 저기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 프라하에서 열리는 IGCS에 참석하게 되었다. 어느 학회 참석이나 마찬가지지만 출발 전까지 학회가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정신없이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꼭 근처 시내에 밥 먹으러 나가는 듯 멍한 정신으로 공항에 도착하여 일행들을 확인하고 나니 여기저기서 학회에 관한 이야기 프라하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며 아 이제는 왠지 모를 낭만의 도시 프라하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IGCS는 2년마다 개최되는 부인 종양학 학회로 1985년도 영국 런던에서 부인암에 관심이 있는 모임에서 부인암의 새로운 협회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었고 같은 해 베를린 FIGO Meeting에서 부인암과 관련이 있는 부인 종양, 방사선 종양, 내과 종양, 병리 분야에 종사하는 20여 개국 49명이 발기인으로 IGCS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IGCS는 2006년 Santamonica, 2008년도 Bangkok 이제는 Praha까지 연속해서 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각각의 IGCS학회에서 있었던 여러 발표 내용들도 하나 둘씩 머릿속에 지나간다. 2006년도 Santamonica의 기억은 새벽 강의를 한번도 빼먹지 않고 다녔던 기억, 학회가 끝나면 여느 때와 다름 없는 저녁행사들, 하루 이틀 가고나니 벌써 돌아갈 시간?? 학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가 미국은 맞았나?? 하며 나의 첫 IGCS학회가 끝이 났고, 두 번째 Bangkok에서는 학회장에서 처음으로 Berek을 봐서 촌놈같이 신기해 했고, 숙소가 방콕 시내의 번화가 한중간에 위치해 방콕의 야경(?)을 잘 보고 왔던 것 같다. 이번의 학회에서는 무엇을 또 어떤 느낌으로 갖고 돌아올까 하며 편한한 복장으로 갈아 입고 비행기 탑승완료. 출발 준비하니 저기 멀리서 보이는 반가운 얼굴 한승수 선생님-11사단 군의관 동기로 시작해서 오늘날 까지 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런지 왠지 모를 반가움- 이번 학회는 한승수 선생님과 함께 하는 학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몇 시간을 비행했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좁은 비행기가 이제는 좀 적응이 되어 가는 중에 프라하에 도착했다. 아무 준비 없이 온 덕분에 도착 후 프라하의 날씨-당연히 모르고 왔지-에 당황하고 추워하며 도착하면 바로 프라하 성의 야경을 보러가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내 머리에서

Fig 1.

Fig 2.

지워지고 빨리 숙소를 찾아 트램과 지하철을 탔다. 도착 후 인상 깊었던 지하철은 왜 요금 받는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과 끝없이 올라가는 길고 긴 음침한 느낌의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왜 그렇게 빠르고 소리는 왜 그렇게 요란한지- 얼핏보는 느낌으로는 옛날에 찍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는 생각도 짧게 해보았다. 지하철은 Florence역이었고 숙소는 Hilton 가까운 거리인데도 돌아가서 겨우 도착… 역시나 프라하 야경 구경은 포기하고 내일부터 있을 학회를 위하여 일찍 취침…

학회장은 Vysehrad. 숙소에서 지하철로 얼마 멀지 않은 거리라 일찌감치 학회장에 도착하여 분위기 파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전 학회 일정 중 들어볼 강의를 여기 저기 표시해 놓고 나니 학회를 다 마친 듯한 느낌… 이번 학회에도 변함없이 보이는 Berek, Vergote, 등의 여러 사람들도 보이고 내가 논문을 쓰며 여러 번 인용했던 silverberg criteria의 병리학자인 Silverberg 선생님의 강의도 듣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중 yondelis라는 약제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이건 무슨 약? ovarian cancer palliative, maintenance therapy를 위한 약제인가. FDA 승인은 아직인가? 이전 2006년도 Doxil 같이 또 다시 몇 년 뒤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지는 강의내용을 떠나 좀 지켜봐야겠지.. 너무도 많은 cytotoxic drug and target theapy agent들… 하나가 출시되기 위한 그 뒤의 수많은 연구와 실험들이 눈에 선하고… 그 많은 약들 중 극소수만 시장에 나와도 소리 소문 없이 몇 년 뒤 사라지고 있으니 수많은 노력이 허무하고 또 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No more cytotoxic drug'라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Ovarian cancer관련 강좌에서 Recurrent ovarian cancer는 maintenane therapy, control이라는 설명이 나오면서 recurrent ovarian cancer도 DM이나 Hypertension 같이 Chronic하게 control하며 유지하는 요법도 한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생각과 비슷한 나의 환자들이 생각이 났다. Chronic ovarian cancer? 라고 혼자 물어보았다.

이번의 학회에서는 여러 좋은 강의도 있었지만 틈틈이 체코,프라하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 독일보다 더 유명한 프라하 맥주(버드와이져, 코젤 등), 바비 인형이 처음 만들어 질 때 프라하 여성들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사실, 보헤미아 지방이 체코라는 사실, 스와로브스키의 본고장도 체코, 유명한 음악가(스메타나, 드보르작), 유명한 산부인과의 의사(Wertheim, Schauta)-이 너무도 많았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와서 한번 같이 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4일간 계속된 학회에서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들을 접할 수 있었고, 전세계의 많은 의사들이 장소, 시간은 다르나 질병에 관한 비슷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어 많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직접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며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다음 학회는 캐나다 뱅쿠버…

Fig 3.

2010 AACR 참관기

계명의대 산부인과 조 치 흠

지난 4월 17일부터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시에서 제101회 미국 암학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암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담당하는 약 25,000명의 의사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올해의 이슈는 "Conquering Cancer Through Discovery Research"로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의 암학회는 암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미국 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와 임상적 연구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미국 임상 암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AACR은 전세계의 암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참석하는 학회이다. 필자는 1999년부터 이 학회와 인연을 맺어 매년 참석하고 있다. 학회를 잠깐 소개하면 정회원이 되려면 회원 2명의 추천과 본인의 논문을 포함한 CV를 보내면 일년에 2회에 걸쳐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학회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며, 회원은 1명만 추천이 가능하기에 만약 타인을 추천하면 본인은 발표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번 AACR에서는 아이슬랜드에서 발생한 화산으로 인해 유럽의 많은 발표자가 도착하지 못해 큰 plenary session에서는 전화를 통한 발표까지도 하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다. 항상 우리나라는 이 학회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하며, 서로의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워싱턴에 있는 오랜 친구인 배인수 박사와도 만나 연구에 대한 깊은 이야기와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논할 수 있었다. 배인수 박사는 조지타운 대학에 carcinogenesis를 전공하고 있으며, 한국에 WCU에도 관여하는 교수이다.

올해 AACR는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학회와는 cancer stem cell에 관한 주제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암 전임상 모델의 셀 속성을 줄기 세포 대상과 광범위한 안티 – 암 줄기로 telomerase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유방암에서도 암줄기 세포와 이를 이용한 치료에 대한 많은 발표가 있었다. 특히 cancer stem cell과 treatment resistance에 관한 강의가 있어 흥미를 더했다. 이외에 microRNAs가 novel therapeutic target으로의 가능성을 다양한 암 종에서 기초적인 데이터와 그에 따른 전임상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모든 일정은 첫날인 4월 17일만 제외하고는 아침 7시에 meet to professor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기에, 특히 기초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면 하루에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이다. 시간을 잘 배분하여야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어, 필자는 이 학회에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공부를 한다. 주로 오전 오후에 틈나는 시간이 되면 포스터를 보러 가는데, 이곳에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로 학생이나 연구원이 발표를 하므로 가서 자세히 물어도 잘 대답해 주는 편이다.

이번 학회에서는 워싱턴에서 연수를 하고 계신, 이종민교수와도 오랜만의 만남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서로 많은 이야기도 하며, 현재 연수에 관계된 많은 과제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부인과에서는 아산병원의 김용만 교수님과, 필자의 스승이신 차순도 교수님과 같이 학회에 갔었기에 저녁시간에는 부인과 교수님들의 저녁을 한국식당에서 가질 수 있었다.
4월 중순의 워싱턴은 이제 여름으로 성큼 다가온 날씨가 되어 지내기가 가장 좋은 시즌으로 되었다.

이번 학회 역시 미국의 새로운 신약에 대한 보고회가 주종을 이루었고, 향후에는 targeted therapy가 주종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학회이었다. 항상 학회를 다녀올때는 하나만 배우고 오자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도 과연 그 하나를 충분하게 내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다.

Society of Gynecological Oncologist 42nd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 참관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박 정 열

Fig 1.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 (SGO)는 미국 부인종양학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매년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SGO's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라는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미국 내 부인종양학회 모임의 성격을 벗어나 국제학술대회의 성격을 지니며, 부인종양학회 모임 중 가장 큰 규모의 것이다. 올해는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 시에서 개최되었다. 본인은 올해로 다섯 번째로 SGO's Annual Meeting에 참가하는 셈이 되며, 플로리다 주에서 개최된 모임에만 세 번째 참석을 하게 되었다. 미국 동부에서 개최되는 모임은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서 참가하기 전 한번쯤은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SGO's Annual Meeting은 항상 참석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 한국에서는 적은 수의 선생님들이 참석 하였는데, 본인을 포함하여 22분의 한국 분들이 참석을 하였다.

처음 사흘 간은 8개의 educational session들과 international symposium이 있었는데, 올해의 international symposium은 film session으로 열렸고, 삼성서울병원의 김민규 선생님과 최철훈 선생님이 각각 "Laparoscopic nerve sparing radical hysterectomy"와 "Laparoscopic radical trachelectomy"라는 제목으로 수술 동영상을 발표하였다. 이후 나흘간은 본 학회로서 7개의 plenary session과 5개의 focused plenary session에서 51개의 구연연제 발표가 있었다. 국내 연자로서는 본인이 plenary session과 focused plenary session에서 각각 "Comparison of radical hysterectomy with chemoradiation therapy for stage IB2 and IIA2 cervical cancer"와 "The impact of tumor morcellation during surgery on the prognosis of patients with apparently early uterine leiomyosarcoma"라는 제목으로 구연연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262개의 포스터 연제 발표가 있었다. 올해의 모임은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새로워진 것으로 "Resident and fellow plenary session"이라는 educational session이 생겨서 resident 혹은 fellow의 포스터 연제 중 5편을 뽑아서 구연 발표를 하고, 두 명의 discussant가 연제의 scientific content에 대한 discussion과 presentation style에 대한 discussion을 각각 하는 형식으로 진

Fig 2.

행되었다. 국내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김보욱 선생님이 "Inhibition of Stress-induced phosphoprotein 1 decreases proliferation of ovarian cancer cell lin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또한, 포스터 연제 중 42편을 뽑아서 "Featured posters"라는 이름으로, TV screen을 통해 전시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발표 음성이 포함되어 있고, 청중이 질문을 직접 발표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올해 채택된 초록들 중에서 최우수 초록으로 Parham G. 등이 제출한 "Effectiveness of a program to prevent cervical cancer among HIV-infected women in Zambia"가 채택되어 Presidential Lecture Award를 받았고, opening plenary session에서 구연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중 작년 학회에서 최우수 포스터로 선정된 2편에 대한 시상식이 올해 있었으며, 국립 암센터 김주영 선생님이 "Persistence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s a prognostic factor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after radiotherapy"라는 초록으로 Best Clinical Practice Poster Award를 받았다. 올해 발표 되었던 연제 중에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Gynecologic Oncology Group (GOG) trial로서 "A phase II trial of radiation therapy and weekly cisplatin chemotherapy for the treatment of locally advanced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vulva"가 있으며 opening plenary session에서 발표 되었다. 또 다른 GOG study로 "Should stage IIIC ovarian cancer be further stratified by intraperitoneal versus retroperitoneal-only disease?"가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surgical technique으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single-port surgery를 이용한 endometrial cancer의 staging operation에 대한 연제가 3개 있었다.

Fig 3

학회중의 오락행사로 "SGO Idol!"이라는 행사가 6일 저녁 7시 30분부터 Hard Rock Orlando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이는 흔히 Idol선발 대회처럼 참가자들이 나와서 노래자랑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투표를 해서 우승자를 뽑는 행사였으며, 호응이 아주 좋았다. 또한, 7일 저녁에는, Florida Hospital Cancer Institute의 Dr. Holloway라는 분의 전원 주택에서 welcome party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미국의 전원 주택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비원이라는 한식집에서 한국에서 참석하신 분들끼리 저녁 회식이 있었다.

끝으로, SGO's Annual Meeting은 항상 최신의 연구 발표와 교육을 주도하는 부인종양학의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생각되며, 많은 한국의 부인종양을 전공하거나 전공하고자 하는 젊은 선생님들께 적극 참여를 원하고 싶은 학회이다.

제4차 Ovarian Cancer Consensus Conference (OCCC) 제4차 참석 후기

서울의대 산부인과 김 재 원

2010년 6월 24~27일 기간에 캐나다 밴쿠버 소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UBC)에서 제 4차 OCCC가 개최되었습니다. GCIG 활동의 일환인 이 모임의 참석자, 간략한 역사, 개최 과정과 모임의 운영 방식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은 조만간 Int J Gynecol Cancer 지에 게재될 예정이니 참조바랍니다.

KGOG에서는 성균관의대 김병기 교수와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참석자의 면면을 보면 ACRIN에서 Mostafa Atri (ACRIN 233 co-PI), AGO에서 전임 회장인 Jacobus Pfisterer, Philipp Harter, Jalid Sehouli, ANZGOG에서 현 GCIG 회장인 Michael Quinn, 이 모임의 scientific committee 위원인 Tate Thigpen, Andreas du Bois, Christian Marth, Jonathan Ledermann, Ted Trimble, Michael Friedlander, COGI에서 Jonathan Berek, 이 모임의 co-chair인 NCI-C의 Gavin Stuart, MRC/NCRI의 Henry Kitchener, IJGC Editor-in-Chief인 Uziel Beller, EORTC-GCG에서는 Ignace Vergote, Nick Reed, Antonio Casado, GCIG 비서인 Monica Bacon, GCIG invited quest로 현 Ann Oncol Editor-In-Chief인 Jan Vermoken, GINECO에서 Eric Pujade-Lauraine, GOG에선 Fred Stehman, Robert Mannel, Larry Copeland, Mark Brady, Mike Birrer, JGOG에서 Aikou Okamoto, Keiichi Fujiwara, MaNGO에서 Nicoletta Colombo, MITO에서 Sandro Pignata, Giovanni Scambia, MRC/NCRI에서 AnnMarie Swart, Gordon Rustin, Iain McNeish, NCI-C에서 Marie Plante, Amit Oza, NCI-US에서 Gillian Thomas, William Hoskins, David Gershenson, NSGO에서 Gunnar Kristensen, Elisabeth Avall-Lundqvist, SGCTG에서 Stan Kaye, SWOG에서 David Alberts, Maurie Markman, 9개 다국적 제약사 - Amgen, Astrazeneca, Boehringer Ingelheim, Eli Lilly, GSK, Ortho-Biotech, PharmaMar, Roche, Taiho - 소속 MD 포함 모두 8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모임의 역사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델란드의 Jan Neijt라는 분의 주도로 여러 나라의 전문가 30여명이 덴마크의 Elsinore에 모여 5일간 workshop을 진행한 후에 당시의 표준 진료 지침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합의 문건을 종설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이 번 모임에도 출석한 분은 J. Berek, S. Kaye, G. Rustin, T Thigpen, J. Vermoken 등 모두 5명입니다. 1998년에 Neijt의 주도하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네델란드의 Bergen aan Zee에서 열린 3일간의 모임이 정리되어

그림1

그림2.

보고되었습니다 (2). 1997년경 GCIG의 공식구조에 대한 점진적 합의가 이뤄지고 틀이 잡혀가던 중 2002년 GCIG 교육위원회에서 3차 OCCC 개최 안건이 제기되었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9월 초 du Bois 주도하에 독일 Baden-Bade에서 3차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2004년 10월 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 10차 IGCS 모임에서 이 3차 OCCC에 대한 보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위 선진적인 여러 그룹은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충격과 자괴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모임의 결과도 역시 Ann Oncol 증보판에 40여 쪽에 걸쳐 보고되었습니다 (3).

이번 4차 모임은 3차 OCCC의 개최 과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3차 모임의 준비 위원회가 모임 개최 1년 7개월 전인 2003년 2월에 조직되었고 우선 임상 연구의 향후 방향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열거한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3가지 핵심 분야로 study methodology, standard therapy, new treatment option이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 5월에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만나 향후 GCIG라는 platform을 통해 진행될 임상 연구에 있어 12가지 핵심 질문을 확정짓게 됩니다. 모임의 목적이 단순하게 각 연구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취합하는 데서 나아가 모임 준비과정에서부터 각 연구단체의 지적 참여를 통해 실제로 이 합의사항이 각 연구단체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3개 연구단체에서 1~6명의 대표자를 파견하고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실제 모임 1달 전에 발표 자료를 미리 회람하여 참가자들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4차 OCCC 역시 2007년 10월 Berlin 모임에서부터 안건으로 제기되어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고 13개 핵심 질문 선정, 각 연구단체에서 참석할 대표자 선정, 발표/토론을 담당할 해당 군/질문 배정 – 김병기 교수는 B군, 저는 C군 소속 – 등의 과정을 거쳤고 회의 수개월 전에 발표 초안이 참석자에게 배포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2 질문 William Hoskins의 발표 자료 중에 일본/한국 역학 자료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은 이제는 은퇴한 대가로 A2 발표 이후에는 회의에 무관심한 듯 내내 ipad로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회의 첫날인 6월 25일(금) 아침 8시에 co-chair인 G. Stuart와 H. Kitchener의 경과보고에 이어 실질적으로 모임을 주도하는 A. du Bois가 모임의 목적, 방법론, 논의될 13개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A 군은 일차요법, B 군은 분자/표적 치료제, C군은 재발암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첫 날은 종일 총 13개 질문 – A1~5, B1~4, C1~4 – 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일정입니다 (표 1). 이 날 저녁은 UBC 구내 Sage Bistro에서 제공되었고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림 1). 식사 후반부에 T. Gillian과 M. Quinn이 우리 일행의 테이블로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Dr. Quinn은 2010년 11월 ~ 2012년 11월 동안 GCIG 의장으로 이후에도 2014년 11월 까지는 전임 의장으로 영향력이 있고 Melbourne에서 열리는 2014년 IGCS에도 관련된 분입니다. 부인종양 분야 geriatric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기도 해서 KGOG에서 뭔가 먼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이틀째인 6월 26일(토) 오전에는 참석자가 각기 소속된 A, B, C군으로 나누어져서 토론을 진행하고 각 군의 consensus statements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T. Trimble, M. Friedlander가 토론 진행을 맡은 C 군에 합류하였습니다. 오후 전체 회의에서는 오전에 각 군별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preliminary statements를 발표하고 의견을 들은 후 다시 각 군별로 나눠져 2차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의제를 놓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토론, 다시 발표, 다시 토론을 몇 차례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이런 회의/의사소통 방식을 delphi method라고 합니다만 실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부인종양학회 회의에 도입해 볼 만합니다. 회의 삼일 째인 6월 27일(일)에는 최종 정리된 consensus

그림3.

statements를 각 군별로 발표하고 각 연구단체의 찬반 – final voting by member groups – 을 묻는 과정이 오전 8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때가 월드컵 축구 경기 기간이었고 이날 아침 7시부터 독일 대 영국 16강전이 있어 이 경기를 강의실에서 관전 후 회의를 진행하기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림 2). 독일이 4 대 1로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독일인들이 광분하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9시부터 열린 찬반 투표 과정은 13개 질문에 대한 합의 문구를 하나하나를 읽고 자구 수정을 해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G. Stuart 교수의 매끄러운 진행 솜씨가 돋보였습니다. 김병기 선생님이 KGOG를 대표해 찬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두 화면 중에 왼쪽에는 consensus statements를 보여주고 오른쪽 화면에선 각 voting 상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excel 파일을 보여주며 진행되었고 각 13개 문항에 대해 차례대로 23개 참여 그룹에게 총 (13 x 23 =) 299 회 찬성 여부를 묻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3). A4 What role dose surgery play today? 라는 문항에 대해서만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AGO-De, AGO-Au 가 반대표를 던졌는데 EORTC 55971 연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하튼 무사히 투표 과정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끝으로 4차 OCCC의 공식 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5차 OCCC 모임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Table Thirteen questions discussed in 4th OCCC

Group A: First-line therapy		
	A1	What are appropriate endpoints for different trials (maintenance, upfront chemotherapy, trials including molecular drugs)?
	A2	Are there any subgroups defined by tumor biology who need specific treatment options/trials?
	A3	What is the role of modifying dose, schedule, and delivery of chemotherapy?
	A4	What role does surgery play today?
	A5	Is the 2004 GCIG recommended standard comparator arm still valid?
Group B: Molecular Agents/Targeted Therapy		
	B1	Molecular prognostic and predictive factors: what should be offered to patients?
	B2	What are promising targets for future therapeutic approaches?
	B3	Do we have appropriate methods for evaluating targeted therapies?
	B4	Which targeted therapies could be regarded as part of standard treatment today?
Group C: Recurrent Disease		
	C1	What is the role of surgery for recurrent ovarian cancer?
	C2	How to define distinct patient populations in need of specific therapeutic approaches?
	C3	Should endpoints for trials in recurrent disease vary from those of first-line trials?
	C4	Is CA125 progression alone sufficient for entry/eligibility into clinical trials for recurrent ovarian cancer?

1. Allen DG, Baak J, Belpomme D, Berek JS, Bertelsen K, ten Bokkel Huinink WW, et al.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1993 consensus statements. Ann Oncol 1993;4 Suppl 4:83-8. PMID: 8312205
2. Berek JS, Bertelsen K, du Bois A, Brady MF, Carmichael J, Eisenhauer EA, et al.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1998 consensus statements. Ann Oncol 1999;10 Suppl 1:87-92. PMID: 10219460
3. du Bois A, Quinn M, Thigpen T, Vermorken J, Avall-Lundqvist E, Bookman M, et al. 2004 consensus statements on the management of ovarian cancer: final document of the 3rd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Intergroup Ovarian Cancer Consensus Conference (GCIG OCCC 2004). Ann Oncol 2005;16 Suppl 8:viii7-viii12. PMID: 16239238

M.D. Anderson Cancer Center
연수 후기

건국대학교 산부인과 이 선 주

2009년 8월 3일 드디어 미국 텍사스 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신나서 재재대는 초등 2학년 아들 쌍둥이와 애엄마 옆에서 정말 글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발령 6년 차 이후에나 나갈 수 있었던 연수를 학교측의 배려로 4년 차에 나가게 된 것,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제 때 연수 나가게 된 것 등… 가족은 즐겁게 웃지만 난 속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군의관 근무부대 첫 출근 시 초병의 '손들어' 한 마디에 손을 들어 화천 바닥에 소문났던 순진한 나답게 휴스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솔직한 소지품 고백으로 3시간의 정밀 입국 심사를 받아 마중 나온 한국분들을 울분에 떨게 한 건 수난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정말 수호천사가 있는 듯, 수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로 휴스턴 외곽의 조용하고 멋진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의 살아 남으려는 좌충우돌은 지면 사정상 생략하기로 한다.

나의 boss는 한국에 많이 알려진 M. D. Anderson Cancer Center 산부인과의 인도계 Anil K. Sood 박사.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이었는데 8월 10일 경 순진하게 인사 갔다가 다음 날부터 붙잡혀 들어가 lab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lab 생활은 같은 아시아계라 우리와 정서가 비슷해 악명(?) 높은 그답게 고난의 연속이었다. 조금은 영어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언어장벽은 높았고 이후 6개월 정도의 머리 속 혼란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추억이다. 그 와중에도 쉬지 않고 주는 미션과 결과 재촉, 잦은 presentation 등으로 모든 게 첫 경험인 나는 잔뜩 주눅이 들었고, 그나마 가자마자 앞의 중국인 방문교수가 싸우고 나가 버려 내게 주어졌던 Immunoconjugate' project가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in vitro experiment의 좋은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약의 독성이 강해 생산중단 되는 바람에 in vivo 실험을 앞둔 상황에서 취소되고 말았다. 3개월만의 일이었다.

허탈해 할 틈도 없이 멕시코 백인 PhD 아주머니랑 공동저자로 "Dopamine recruits pericytes in stress mediated ovarian carcinoma"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였다. 이후 5개월은 나의 동료가 동료가 아니라 또다른 P.I.였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다. 덕분에 많은 실험 결과를 냈지만 다른 한국인 동료들이 그녀와의 결별을 종용하였고 결국 8개월째 실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귀국 전 draft를 내고 왔지만 현재도 추가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무렵 체류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남은 4개월을 놀다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만 새로운 두 개의 프로젝트를 또 맡게 되었다.(나쁜 boss!). 하나는 "Antitumor effects of metronomic vs. maximum tolerated dosage of Hyaluronic acid-Taxol in ovarian carcinoma"였고, 다른 하나는 "Selective inhibition of BRCA1 and/or BRCA2 gene-silencing ovarian cancer cell growth by Cisplatin and Poly (ADP-ribose) polymerase-1 inhibitor"이었다. 이들은 순수하게 혼자 진행하는 프로젝트였고 이미 hard training이 된 상태라 비교적 수월하였다. 첫 과제는 이미 draft를 보낸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뒤이은 연구자가 나머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돌이켜 보면 정말로 좌충우돌, 헉헉대던 시기였던 것 같으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나날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애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waiting list까지 올린 끝에 성공한 것 (1년 체류에 어느 학교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 1년 동안 3차례 휴스턴~올란도, 휴스턴~산타페, 휴스턴~ 라스베가스~ 그랜드케년 ~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를 자동차 운전으로 다녀온 것, 또한, 고백하건대,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한국인을 사귀고 만난 것 (영어 늘 틈이 없었음),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으로 우물안 개구리 같던 내 머리 속을 한없이 넓혀 놓은 것 등등. 2010년 8월 13일 귀국하여 이제는 한국 생활에 적응이 다 되었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 당시는 나를 닥달하던 못된 사람처럼 생각되던 Dr. Sood가 지금은 고마운 느낌이 든다는 사실. 어찌보면 소극적이고 소통도 원활치 않았던 방문교수를 자기의 길로 동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내게는 휴식시간이 될 뻔한 시기를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바꿀 기회를 주었다. 또한, 항상 진료와 연구, 강연을 해야 하기에 시간을 쪼개고 자기를 밀어 부치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부인종양 학회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록 제출자 명단

제1저자	저자 소속기관	제 목	내 역	해당학술대회	마감일
이채형	동국의대	The evaluation of viral load and physical state of HPV 16 as a predictive and diagnostic marker for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nd carcinoma of cervix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강희석	성균관의대	Outcome and reproductive function after cumulative high-dose combination chemotherapy with bleomycin, etoposide and cisplatin (BEP) for patients with ovarian endodermal sinus tumors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전 섭	순천향의대	자궁내막암 조직과 세포주에서 RUNX3 유전자의 발현과 촉진자 메틸화에 대한 연구	우수논문상(구연)	25차 학술대회	2011년 4월
유승철	아주의대	A feasibility study of sequential chemo-radiation therapy in FIGO stage III-IV endometrial cancer patients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김보욱	연세의대	A phase II trial of radiation therapy with concurrent paclitaxel chemotherapy in high-risk endometrial cancer patients after staging operation : An interim analysis of a prospective multicenter trial (KGOG2001)	우수논문상(구연)	25차 학술대회	2011년 4월
이미범	연세의대	Gene expression profile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포스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조한별	연세의대	Blood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조한별	연세의대	Pre-treatment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NLR) is elevated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and predicts survival after treatment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조한별	연세의대	Accuracy of preoperative assessment in endometrial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김영석	울산의대	Feasibility and Outcome of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Recurrent Cervical Carcinoma after Initial Surgery	우수논문상(구연)	25차 학술대회	2011년 4월
노현진	울산의대	Inactivation of O6-methyguanine-DNA methyltransferase (MGMT) by promoter hypermethylation ? A key factor of epithelial ovarian carcinogenesis in specific histologic types	우수논문상(구연)	25차 학술대회	2011년 4월
박유란	울산의대	부인암에서 Foxp3 전사인자의 발현	우수논문상(포스터)	25차 학술대회	2011년 4월
엄정민	울산의대	The role of secondary cytoreductive surgery in the management of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이신화	울산의대	Silencing of STAT3 and Src Gene by RNA Interference Enhances the Cytotoxic Effect of Cisplatin in Ovarian Cancer Cell Lines	우수논문상(구연)	25차 학술대회	2011년 4월
최혁재	울산의대	Differential diagnostic performance of MR in the detection of lymph node metastases according to the tumor size in early-stage cervical cancer patients	우수논문상(포스터)	25차 학술대회	2011년 4월
현민경	울산의대	The role of pelvic and/or paraaortic lymph node dissection in the surgical management of apparently early stage malignant mixed mullerian tumor of uterus	우수논문상(포스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김선영	연세의대	Reptin: new candidate of diagnostic and target marker for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26차 학술대회	2012년 4월
김남희	이화의대	Isoflavones From Phytoestrogens And Cervical Cancer Risk: A Nested Case-Control Study	우수논문상(구연)	26차 학술대회	2012년 4월
구유진	울산의대	Response of First-line Single Agent Chemotherapy for Low Risk Gestational Trophoblastic Neoplasia	우수논문상(구연)	26차 학술대회	2012년 4월
공태욱	아주의대	Comparison of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with weekly cisplatin versus monthly fluorouracil plus cisplatin in FIGO stage IIB-IVA cervical cancer: 16-year experience at a single institution	우수논문상(포스터)	26차 학술대회	2012년 4월
박성택	가톨릭의대	Incidence and clinicopathologic behavior of uterine cervical carcinoma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우수논문상(포스터)	26차 학술대회	2012년 4월
변정미	인제의대	Tetraarsenic oxide and cisplatin induce synergism of apotosis in cervical cancer : in vitro and in vivo	우수논문상(포스터)	26차 학술대회	2012년 4월

KOREAN SOCIETY OF GYNECOLOGY ONCOLOGY AND COLPOSCOPY

2011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제17차 심포지움

일시 : 2011년 11월 3일 (목) 장소 : 리츠칼튼호텔

08:00-08:40	Registration	
08:40-08:50	Opening Remark	이준모 (차의대)
08:50-09:00	시상식(학회 사무공로상 및 학회지 공로상)	
Session I	**Recent issues in gynecologic cancer screening**	**이효표 (건국의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09:00-09:30	What would George think? (The future of cervical cancer screening)	Warner Huh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USA)
09:30-09:40	Discussion	이재관 (고려의대)
09:40-10:05	Update in ovarian cancer screening	김대연 (울산의대)
10:05-10:10	Discussion	권상훈 (계명의대)
10:10-10:35	Update in breast cancer screening	안태규 (조선의대)
10:35-10:40	Discussion	주원덕 (차의대)
10:40-11:10	Coffee Break	
Session II	**Recent issues in endometrial cancer**	**남주현 (울산의대), 박종섭 (가톨릭의대)**
11:10-11:40	Lymphadenectomy in endometrial cancer	Ginger Gardner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USA)
11:40-11:50	Discussion	김승철 (이화의대)
11:50-12:15	Update on management of advanced and recurrent endometrial cancer	정현훈 (서울의대)
12:15-12:20	Discussion	전 섭 (순천향의대)
12:20-12:45	Potential novel targets and target therapy in endometrial cancer	김성훈 (연세의대)
12:45-12:50	Discussion	이정원 (성균관의대)
Special Symposium		**이찬 (차의대)**
12:50-13:05	The use of icodextrin adhesion reduction solution in gynecologic cancer surgery	박정열 (울산의대)
13:05-13:50	Lunch	
Session III	**Special issues in Gynecologic Cancers**	**김성한 (고신의대), 송용상 (서울의대)**
13:50-14:20	Chemotherapy in Ovarian Cancer	Jonathan Ledermann (University College London)
14:20-14:30	Discussion	장기홍 (아주의대)
14:30-14:55	Quality of life in the management of gynecologic cancer	윤영호 (서울의대)
14:55-15:00	Discussion	김문홍 (원자력의학원)
15:00-15:25	Management of chemothera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정대훈 (인제의대)
15:25-15:30	Discussion	이근호 (가톨릭의대)
15:30-16:00	정기총회	
16:00	폐회	

주최 |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Tel : 02-512-5915 Fax : 02-512-5421 www.ksgoc.or.kr

ASGO
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www.asgo2011.org

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2nd Biennial Meeting of

November 3-5, 2011
The Ritz-Carlton, Seoul, Korea

Theme: New Insight into Gynecologic Cancer in Asia

Important Dates

Abstract Submission Due June 30, 2011
Early Registration Due July 31, 2011

Save the date

ASGO 2011 Secretariat
#103-1306 ParkTower, 24 Yongsan-dong 5ga, Yongsan-gu
Seoul 140-904, Korea
Phone: +82-2-3452-1855 Fax: +82-2-2192-3955
E-mail: info@asgo2011.org Website: http://www.asgo2011.org

학술대회 학술대상, 우수논문상, 학회지공로상

학술대상

- 수상자 : 서울의대 **강순범** 교수님
- 논문명 : Preoperative Fluorine-18 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Predicts Recurrence in Patients with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1. 수상자 : 고려의대 **민경진**
   논문명 : Comparison of the Cervista™ HPV assays and HPV 4 ACE for the detection of HPV 16/18 in Hybrid capture2 positive media

2. 수상자 : 연세의대 **김선영**
   논문명 : Reptin: new candidate of diagnostic and target marker for ovarian cancer

3. 수상자 : 이화의대 **김남희**
   논문명 : Isoflavones From Phytoestrogens And Cervical Cancer Risk: A Nested Case-Control Study

4. 수상자 : 울산의대 **구유진**
   논문명 : Response of First-line Single Agent Chemotherapy for Low Risk Gestational Trophoblastic Neoplasia

5. 수상자 : 성균관의대 **김민규**
   논문명 : Synchronous gynecologic malignancy and associated risk assessment regarding Lynch syndrome: Single institution review

우수논문상(포스터)

1. 수상자 : 아주의대 **공태욱**
   논문명 : Comparison of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with weekly cisplatin versus monthly fluorouracil plus cisplatin in FIGO stage IIB-IVA cervical cancer: 16-year experience at a single institution

2. 수상자 : 가톨릭의대 **박성택**
   논문명 : Incidence and clinicopathologic behavior of uterine cervical carcinoma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3. 수상자 : 인제의대 **변정미**
   논문명 : Tetraarsenic oxide and cisplatin induce synergism of apotosis in cervical cancer : in vitro and in vivo

학회지 공로상 : 총 17편

1. 수상자 : **송태종**(성균관의대) – 총 4편 수상
   1) Accuracy of frozen section diagnosis of borderline ovarian tumors
   2) Prognostic significance of DNA ploidy in stage I endometrial cancer
   3) Oncologic and reproductive outcomes of cystectomy compared with oophorectomy as a treatment for borderline ovarian tumors
   4) Oncologic and reproductive outcomes in patients with advanced-stage borderline ovarian tumors

2. **송용중**(부산의대)
Extended cytoreduction of tumor at the porta hepatis by an interdisciplinary team approach in patients with epithelial ovarian cancer

3. **서동훈**(서울의대)
Body mass index and survival in patients with epithelial ovarian cancer

4. **김희승**(서울의대) ; 총 2편
1) Significance of numbers of metastatic and removed lymph nodes in FIGO stage IB1 to IIA cervical cancer: Primary surgical treatment versus neoadjuvant chemotherapy before surgery
2)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low anterior resection with primary anastomosis and Hartmann's procedure in advanced primary or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cancer

5. **이마리아**(연세의대)
A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of single port and four port approaches for hysterectomy in terms of postoperative pain

6. **정용욱**(차의대)
Single porttransumbilicallaparoscopicsurgeryforadnexallesions:

7. **정난희**(경희의대)
Role of Systematic Lymphadenectomy and adjuvant radiation in early-stage endometrioid uterine cancer

8. **동서연**(경희의대)
Efficacy of para-aortic lymphadenectomy in early-stage endometrioid uterine corpus cancer.

9. **김영석**(울산의대)
Current chemoradiotherapy or radiotherapy alone for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in elderly women

10. **강석범**(국립암센터)
Role of Extended Chemotherapy in Advanced Ovarian Cancer Patients with High Posttreatment Serum CA-125 Levels

11. **백지흠**(아주의대)
Overcoming technical difficulties with single-port access laparoscopic surgery in gynecology: using conventional laparoscopic instruments

12. **정현훈**(서울의대)
Prognostic value of metabolic tumor volume measured by FDG-PET/CT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13. **성석주**(차의대)
Management of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 Levonorgestrel-releasing Intrauterine System: Single Arm,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 Study (KGOG2006).

학회 회무보고

제 1차 명예회장단회의

- 일 시 : 2011년 4월 14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다봉
- 참 석 자 : 김승조, 박찬규, 이효표, 목정은, 김재욱, 남궁성은, 강순범, 김경태, 이응수, 이준모, 남주현, 김영태, 김승철, 김수녕, 윤주희 (이상 15명)

1. 회장 인사말씀
2. 보고 사항
   - 1/4분기 회무보고 요약 – 총15회에 걸쳐 제 위원회의 시행함.
     : 부인암 예방위원회, 국제 교류위원회, 정보 통신위원회 위원장 회무보고, 현행 본 학회 홈페이지 관리 업체 프레젠테이션
   - 주요 안건 도출 상임위원장 배석, 발표
3. 토의 사항
   - 각 제위원회별 중/장기 발전계획안
   - 2011년 4월 8일 제2차 상임이사회 토의 및 결정사항 보고
4. 선임 명예 회장님 말씀
5. 명예 회장단 제안, 질의/답변 사항

제 2차 명예회장단회의

- 일 시 : 2011년 7월 14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바이킹스메종
- 참 석 자 : 김승조, 박찬규, 이효표, 목정은, 김재욱, 남궁성은, 강순범, 김경태, 이응수, 이준모, 남주현, 윤주희 (이상 12명)

1. 회장 인사말씀
2. 제 1차 명예회장단 회의록 보고 –무수정 통과
3. 보고 사항
   - 춘계 학술대회 결산 보고
   - 프리미엄 심포지움 결산 보고
   - 2/4분기 회무보고 요약 – 총 9 회
   - '부인 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를 위한 워크샵' 진행 상황 보고
   - 추계 학술대회 진행 상황 보고
   - 2011년도 전반기 회계 보고
4. 토의 사항
   - 학회 사무실 운영 발전안 : 공간 협소, 빈번한 사무실외 회의 주최에 따른 부가적 회의비용 발생 등의 문제 해결 방안
     : 현재 임대 사용 중인 산부인과 학회 건물 1층 공간의 확대 임대 고려 제안
   - 중/장기 중점 사업 점검
     '학회 홈페이지 개선'
     : 2011년 11월 3일 이전까지 추계 학술대회시 학회 홈페이지 개선 사업 추진, 영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동시 제작
     '부인 종양 분야 보험 수가 인상' : 2011년 4월 인상안 제출
     : 의협 및 산부인과학회와 적극적 협력과 더불어 독립적 개선 노력 병행 추진 제안
     '부인종양학 교과서 편찬'
     : 2012년 출간 목표로 사업 추진 제안
4. 선임 명예 회장님 말씀/건배 제의

제 3차 명예회장단회의

- 일 시 : 2011년 10월 6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다봉
- 참 석 자 : 김승조, 이효표, 목정은, 김재욱, 남궁성은, 강순범, 이규완, 김경태, 황윤영, 이응수, 이준모 (이상 11명)

1. 회장 인사말씀
2. 제 2차 명예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토의사항
   1) 학회 사무실 운영 발전안 : 회의 공간 확대를 통한 회무비 절감, 산하 협의체인 '부인종양연구회' 회의공간 협조로 현재 임대 사용중인 산부인과학회 건물 1층 공간의 확대 임대 제안
   2) 차기 제 1부회장 추천 건
   - 명예회장단 표결로 마련된 '아주의대 유희석 교수의 차기 제 1부회장 추천안' 을 상임이사회 심의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함.
   3) 회장 임기에 관한 건
   - 회장 임기 1년의 목적(명예회장단 의견): 부인종양학회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대학 또는 각 회원에게 회장 영입의 균등 기회를 주기 위해.
   - 현 회장 임기 1년이 부각되는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명예회장단의 의견일치로 '회장 임기 1년제' 를 유지하기로 하는 의견으로 모았음.
   - 회장 임기 2년제 관하여는 차기 부회장까지 학회 회칙 1년제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회장 임기 2년제' 는 차기 부회장 이후 다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음.

학회 회무보고

제 1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11년 1월 5일(수) 오후 7시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서궁
- 참 석 자 : 김성한, 김수녕,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남주현, 류기성, 오병찬, 유희석, 윤주희, 이선경, 이응수, 이준모 (이상 13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토의사항
   1) 2011년도 각 위원회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방안에 관한 건
   – 제 위원회 1차 모임시 통해 활성화 방안 토의키로함.
) 교과서 편찬의 건 – TFT구성의 건
   – 기존 TFT (위원장 유희석 교수, 간사 : 장석준 교수) 활성화, 2011년 2월 중 모임 개최키로함.
   3) 조직 재편 건
   – 부인암 진료 권고안 소위원회 : 회장 직속 상설 소위원회로 재편
   – 교과서 편찬 위원회 재 활성화 : 저작권, 저자 100여명의 원고료, 편집 형태 등에 논의함.
   – 소식지 소위원회 : 정보통신 위원회산하 소위원회에서 홍보 위원회 산하로 재편함.
   – 정보 소위원회 : 정보통신 위원회산하 소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위원회로 흡수하고 폐지함.
   – 각 위원회별 간사, 위원 확정함.
   – 2011년 1월 중순 홈페이지 수정키로함.
   4) 해외학회 지원에 관한 건
   – 한국 제약 협회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법적 자문하기로 함.
   5) 수련위원회
   – 제 5차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 예정, 프로그램 개발하기로 함. 2011년2월11일 1차 모임 개최하기로 함.
   6) 부인암 예방위원회
   – 예방 벡신 대국민 홍보 사업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용/일반인용 가이드라인 수정 예정. 2011년1월12일 1차 회의 예정.
   7) 보험 위원회
   – 임의비급여건, 부인암진료권고안 완성에 따른 수가 전략 (수술료등)및 급여(항암제 관련)확대에 관한 건. 산부인과 학회 보험 위원회를 통한 부인 종양 수술료 인상안 토론함.
   8) 편집 위원회
   – JGO의 SCI등재에 관한 보고
   9) 기획/홍보/재정/정보 통신 위원회 – 학회 홈페이지 개선 및 베너 광고 유치 관리등에 관해 논의함.
   10) 기타 안건 – 학회 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추후 토의함.

제 2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11년 4월 8일(금) 오후 7시
- 장 소 : 취영루
- 참 석 자 : 이준모, 남주현, 김수녕, 류기성, 박상윤, 유희석, 이선경, 윤주희 (이상 8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제 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보고사항
   : 1/4분기 회무보고 #. 별첨 참조 (주요회의 요약, 홈페이지 개선안 견적서, 학술대회 예산안 견적서, 교과서 출판 견적서)
4. 토의 및 결정 사항
   – 각 제위원회별 중/장기 발전계획안 점검
   – 초청 외국인 연자의 '명예 회원' 임명
   – 초청 외국인 연자 영접 체계 정비 : 정관 '부칙' 영접 원칙 기술
   '본 회의 초청 외국인 연자에 대한 영접은 동반자를 제외한 초청 연자에 한하며, 교통비는 왕복 비지니스급 비행기 편으로 하고, 숙식은 학회 참석일을 포함하여 최장 5일 이하로 한다. 이 부칙은 불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2011년 5월 8일 이후 유효하다. 부칙 개정은 향후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 2/3이상 찬성시 가능하다.'
   – 학회 소식지는 '웹진' 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원 전원에게 무료 배포하며 웹문서 및 PDF 문서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다. 단 본 회 대외 홍보 및 인지도 함양을 위한 제한적 지면 발생은 유지한다.
   – 본 회의 홈페이지 및 전산화 개선은 회 예산에 적정한 수준에서 진행한다. 업체 선정은 공개 입찰이며, 2개 회사 이상의 참여를 원칙으로한다.
   – '회명 개정' 에 대해 추후 논의 한다. :– 웹상 검색 문제 및 시류에 따른 제안, '정통성'과 '국제적 경향' 고려
   – '본회 회계와 연관된 KGOG의 회계'를 본 회 회계 기록에 명시한다.
   – 학회 중점사업 선정 :
   '부인 종양 분야 보험 수가 인상' : 기존의 행위별 수가(수술시간과 난이도로 상대 가치 점수 부여)에 세부분류를 추가한 안으로 결정함. 2011년 4월 중순까지 '보험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학회 기금 '을 보험 수가 인상 사업에 투자한다. '부인종양학 교과서 편찬' : 2012년 4월 춘계학술대회까지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1년 11월 추계심포지움까지는 draft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전술한 토의 및 결정사항은 명예회장단 회의 시 공개 및 설명을 한다.

학회 회무보고

--〉 국제학회 주관 학회사무국과 교신하여 국내 참여 학자의 후원 선정 대리권한을 위임받도록 한다.
예〉 폐경학회의 ISM주최학회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한
--〉 5개국이상이 참가하는 본 학회 주최, 국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추진을 모색한다.

제 3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11년 6월 28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서초 사리원
- 참 석 자 : 이응수, 이준모, 남주현, 김수녕,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류기성, 박상윤, 배덕수, 유희석, 이선경, 윤주희 (이상 13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2011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회무 보고
   제1차 명예회장단회의 (2011년 4월 14일)
   제3차 학술위원회의(2011년 5월 16일)
   제2차 정보통신위원회의(2011년 5월 24일)
   제16차 편집위원회의(2011년 5월 25일)
   제2차 수련교육위원회의(2011년 6월 10일)
   제3차 정보통신위원회의(2011년 6월 13일) :
   홈페이지 담당 업체 선정
4. 제 26차 춘계 학술대회, 1차/2차 프리미엄 심포지움 보고
5. 토의사항
   1) 학회 정관 개정의 건
   – 국문 '대한부인종양학회', 영문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로 개정 결정
   – 정관의 전반적 개정 혹은 학회 명만을 개정하는 부분 개정에 관해 추후 논의 결정
   – 정관 개정관련 TFT구성에 관한 의견 제기됨.
   – 회장단 및 상임이사 임기 개정에 대한 발의 및 제청에 따른 표결 : 총원 16명중 12명 참석, 2년 임기에 11표, 현행 1년제 1표로 가결 : 추후 제2차 명예회장단회의시 보고 예정
   --〉 향후 총회에서 발의 예정
   – '콜포스코피 연구회' 결성, 산하 단체 구성 여부에 대한 토의 : 추후 논의 예정
   – KGOG관련하여 '산하' 개념에 대한 토의 : 추후 논의 예정
   2) 학회 로고 변경의 건
   – 학회 역사, 정통성이 담긴 새로운 로고를 향후 선정 결정
   3) 부인종양학 교과서 출판사 선정의 건
   – 고려의학 출판사와 가본 의학 출판사중 추후 선정 결정
   4) 자궁경부암 백신 가이드라인 출판의 건
   – 써바릭스 가이드라인 5,000-7,000부 인쇄 결정, 가다실 가이드라인 최소 500부 인쇄
   예정 추가 인쇄 여부는 향후 결정
   5) 제 5차 젊은의사 워크샵(9/3) 점검의 건
   – 전임의, 수련의의 적극적 참여 독려
   – 등록비 : 수련의 1만원, 전임의 및 비회원 2만원, 등록시 책자 1권 무료 제공, 추가 책자는 1만원에 현장 판매
   – 행사후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서 참석자 전원 대상 석식 결정
   6) 제 17차 추계심포지움 점검의 건
   7) 제 27차 춘계 학술대회 일정, 장소 선정의 건
   – 일시 : 2011년 4월 27일(금)
   – 장소 후보지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목포 '현대 호텔'
   – 사무국 사전 답사후 보고 결정

제 4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11년 10월 25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바이킹스메종
- 참 석 자 : 이응수, 이준모, 남주현, 김수녕, 김승철, 김영태, 류기성, 박상윤, 유희석, 이선경, 윤주희(이상 11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2011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보고 사항
   1)회무 보고
   제 3차 상임이사회의 (2011년 6월 28일)
   제 2차 명예회장단 회의 (2011년 7월 14일)
   제 5차 정보통신 위원회의(2011년 7월 26일)
   제 17차 편집위원회의(2011년 8월 17일)
   제 6차 정보통신 위원회의(2011년 10월 4일)
   제 4차 학술위원회의(2011년 10월 5일)
   제 3차 명예회장단 회의 (2011년 10월 6일)
   제 18차 편집위원회의 (2011년 10월 13일)
   주요 사업 보고(첨부)
   – '제 5차 부인 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를 위한 워크샵(이하 워크샵)' (2011년 9월 3일)
   – 자궁경부암 백신 가이드라인 출간 '워크샵' 시 1차 배포, 추계학술대회시 2차 배포, 3차 우편 배포

학회 회무보고

- '제 17차 추계학술대회' (2011년 11월 3일)
- '제 27차 춘계 학술대회' (2012년 4월 20일)

4. 토의사항

1) 제 17차 추계심포지움 점검의 건

2) 부인종양학 교과서 출판사 선정의 건 – 추후 가본의학, 고려의학중 선정

3) 제 27차 춘계 학술대회 점검의 건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 장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주

– 숙박 : 광주 라마다 호텔, 홀리데이인 호텔 등

4) 학회 로고 변경안 점검의 건

– 상징 도안 유지, 학회명 개정시 개정명으로 변경

5) 회칙 8차 개정안 정기총회 상정안 작성 및 심의 건

회칙제정	1984. 11. 30.
1차 개정	1990. 11. 9.
2차 개정	1998. 11. 6.
3차 개정	2001. 11. 2.
4차 개정	2004. 11. 12.
5차 개정	2006. 11. 2
6차 개정	2007. 11. 23
7차 개정	2009. 7. 9

개정안〉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부인종양학회(Korean Society of Gynecoloic Oncology)"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6) 학회 사무실 운영 발전안 심의 건–학회 기금 운영 방안으로 토의됨.

7) 차기 제 1,2부회장 심의 건

차기 제 1 부회장 피추천인 유희석 교수와 차기 제 2 부회장 피추천인 이태성 교수를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함. 본 심의안의 정기 이사회 보고(2011년 11월 3일 오전) 후 정기 총회(2011년 11월 3일 오후) 인준 상정 의결함.

8) 회장 임기에 관한 건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차 명예회장단회의 상정안(임원의 임기에 관한 건) 표결 : 총원 15명 중 10명 참석, 제 14 조 (임원의 임기) 명예회장단 상정안에 관한 건을 부결하였음.

제 1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10년 12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사리원
- 참 석 자 : 이준모, 남주현, 강석범, 김병기, 김용만, 김재원, 김태응, 김태진, 남계현, 윤주희, 이철민, 조치흠 (이상 12명)

I. 회장님 인사말씀

II. 학술위원장님 인사말씀

III. 2010년 제 7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IV. 회의안건

1. 제 26차 학술대회 준비의 건

– 일시 : 2011년 4월 29일(금) 장소 : 경주현대호텔, 경주

(1) 학회 프로그램 및 준비일정 논의 및 외국연자 강연 건

1) 학회프로그램 준비일정

– 일반 연제, 학술상, 학술대상 모집공고 및 연제접수 (3월 말 마감)

– 학술위원회에서 분류 및 심사 (학회 1개월 전)

– 공로상 공고: SCI논문에 JGO논문을 인용한 회원에 대한 시상, 기간은 지난1년

2) 학회프로그램

– 오전일정은 symposium, plenary session을 진행하고 기존의 luncheon symposium대신 Invitation lecture를 두기로 함.

– 오전 symposium은 외국연자를 중심으로 3연제가 진행되고, 국내 연자는 1명을 유사한 연제로 추천 받기로함. 지명토론자는 초청자를 중심으로 하기로함.

– Invitation lecture의 주제는 HRT와 관련된 것으로 하고 연자를 추천 받음.

– Plenary session은 학술대상 포함 6연제를 하기로 함.

– 오후는 자유연제 20연제를 2개의 발표장에서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함.

– 오후 symposium은 translational research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cancer stem cell, microRNA 및 chemo-resistance등의 내용에 관한 주제로 발표자 및 지명토론자를 추천 받기로 함.

– 오후 두 번째 session에는 tumor board를 진행하기로 하고, 진행자 및 참여자를 추천받기로 함.

– 오후 마지막 일정은 우수논문상 시상식 및 만찬으로 하기로 함.

3) 외국연자 선정 건

a) Robert E. Bristow,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Medical Center

– 접수된 강연 제목

①Primary Cytoreductive Surgery for Advanced – Stage Ovarian Cancer: Defining 'Optimal' Residual Disease

②Delaying the Initial Surgical Effort for Advanced-Stage Ovarian Cancer: the Role of Neoadjuvant Chemotherapy

③The Role of Upper Abdominal Cytoreduction in Ovarian Cancer Surgery

③의 강연제목 대신 'Secondary Cytoreduction for Recurrent (Ovarian) Cance"를 새로운 강연제목으로 대체하기로 함

b) Stuart Lichtman, MSKCC, USA

– 접수된 강연 제목

①Identifying vulnerable older women with gynecologic cancer: Geriatric assessment and practice

②Anticancer drug therapy in older women with gynecologic cancer

학회 발표 연제는

–Robert E. Bristow는 및 바뀐 강연제목, Stuart Lichtman은 제목으로 하였으며 추후 대한부인종양연구회(KGOG)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함.

2. 2011년 제 17차 추계 심포지엄 프로그램 논의 및 외국연자 섭외의 건

– 일시 : 2011년 11월 3일(목) 장소 : 리츠 칼튼 호텔

– 외국연자 후보자

ASGO 개최 시 방문하는 외국연자를 섭외하기로 함.

– 일정은 부인종양연구회(KGOG)와 추후 협의하기로 함.

제 2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11년 3월 29일(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석예정자: 이준모, 남주현, 강석범, 김병기, 김용만, 김재원, 김태응, 김태진, 남계현, 윤주희, 이철민, 조치흠, 김석모, 김재훈

I. 학술위원장님 인사말씀

II. 회장님 인사말씀

III. 2010년 제 8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무수정 통과

IV. 회의안건

1. 제 26차 학술대회 준비 및 최종점검의 건

– 일시 : 2011년 4월 29일(금) 장소 : 경주현대호텔, 경주

(1) 학회 프로그램 및 준비일정 논의 및 외국연자 강연 건

1) 학회프로그램 준비

– 일반 연제, 학술상, 학술대상 선정: 학술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각 부분별로 학술위원들의 사전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심사함

– 학술대상은 서울의대 강순범교수가 학술대상자로 선정됨.

– plenary session은 국립암센터의 임명철 박사의 연제외 4편의 연제가 선정됨.

– 일반 연제 발표는 가톨릭의대 이성종선생의 발표 연제 외 20편이 선정됨

– 포스터발표는 인하의대 송은섭교수의 발표연제외 121편이 선정됨

– 기타사항

2. 2011년 제 17차 추계 심포지엄 프로그램 논의 및 외국연자 섭외의 건

– 일시 : 2011년 11월 3일(목) 장소 : 리츠 칼튼 호텔

– 외국연자 후보자 선정

– 심포지엄 일정 준비.

3. 기타사항

제 3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11년 5월 16일(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이준모, 남주현, 강석범, 김병기,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남계현, 유상영, 윤주희, 이재관 (이상 11명)

I. 학술위원장님 인사말씀

II. 회장님 인사말씀

III. 2011년 제 2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IV. 보고사항

1. 제 26차 학술대회 보고

IV. 회의안건

1. 2011년 제 17차 추계 심포지엄 프로그램 논의 및 외국연자 선정 건

– 일시 : 2011년 11월 3일(목) 장소 : 리츠칼튼 호텔

1) 심포지엄 프로그램 논의– 프로그램(가안) 첨부.

2) 외국연자 선정 건

– 2011년 ASGO 프로그램, 초청 및 외국연자 list 확인 후 선정.

학회 회무보고

제 4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11년 10월 5일(수) 오후 7시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이준모, 남주현, 강석범, 김대연, 김병기,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김태응, 남계현, 유상영, 윤주희, 이재관, 이철민(이상 14명)

I. 학술위원장님 인사말씀

II. 회장님 인사말씀

III. 2011년 제 3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IV. 보고사항

– 2011년 제 17차 추계심포지움 점검
일시 : 2011년 11월 3일(목) 장소 : 리츠칼튼호텔

1) 심포지움 프로그램 확정

2) 외국연자 변경

a. Richard R. Barakat (USA)→Ginger Gardner (USA)

b. Jonathan Berek (USA)→Jonathan Ledermann (UK)

IV. 토의사항

1. 2012년 제 27차 학술대회

– 일시 : 2012년 4월 20 일(금)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춘계 학술프로그램(가안) 마련함.

편집위원회 7기 제 14차 회의

•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 석 자 : 유희석, 김재원 (이상 2인)

1. 제 13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1) 2010년 9월호 발간 – 1,030부 제작

국내 배포: 456부 (회원 209부, 도서관 173부, 유관학회 60부, 제약사 14부)

국외 배포: 534부 (외국학회 215부, 개인 74부, 기관 3부, IGCS 200부, JSGO 42부)

보관: 40부

* 국내외 2,000 여명 대상으로 매회 '게재논문 list'emailing 하고 있음.

2) 2010년도 원고 접수 현황 (~11월 24일까지)

投稿 166 (원저 86편, 종설/correspondence 5/4편, 증례 보고 71편)

3) 12월호 발간 계획 및 접수 원고 목록

4)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 목록

5) 08/09년 JGO 게재 논문 93편(종설 12, 원저 57, 증례 14) 중 2010년 SCI(E) 논문에 피인용된 횟수 (2010.11.24 현재)는 60건 (국내 저자 인용 20건, JGO 논문에 인용 7건 포함)

2010 IF 예상 현재까지 60/93 ≒ 0.645

* Gynecol Oncol, IF 3.733, rank 5/69

Int J Gynecol Cancer, IF 2.179, rank 20/69

6) 16차 심포지움 '학회지 공로상' 13건 수여함

7) Scopus indexed, Google indexed

3. 논의사항

1) 2011 review paper: Diffusion-weighted MR imaging of gynecological disorders: Its diagnostic role (Dr. Motoshima)

2) Mullerian Inhibiting Substance/anti-Mullerian Hormone: a novel treatment for Mullerian tumors and a marker of gonadal function (Drs. MacLaughlin & 김장흡) 종설 – 유사 논문이 이미 출간돼 있어 JGO 인용지수 향상에 도움이 될지 추가 논의 필요

3) Miller DS, King LP. Gynecologic oncology group trials in uterine corpus malignancies: recent progress. J Gynecol Oncol. 2008 Dec;19(4):218-22. – duplicated publication

4) editorial board member 조정, 추가 – 추후 논의

5) 편집위원회 workshop 2011 – 추후 논의

편집위원회 7기 제 15차 회의

• 일 시 : 2011년 2월 8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 석 자 : 유희석, 김재원 (이상 2인)

1. 제 14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1) 2010년 12월호 발간 – 1,000부 제작

국내 배포: 456부 (회원 209부, 도서관 173부, 유관학회 60부, 제약사 14부)

국외 배포: 534부 (외국학회 215부, 개인 74부, 기관 3부, IGCS 200부, JSGO 42부)

보관: 40부
* 국내외 2,000 여명 대상으로 매회 게재논문 list' emailing 하고 있음.
* 2010 reviewer 80여명에게 acknowledgement e-mail 발송함.(자료 첨부)

2) 2010년도 원고 접수 현황; 投稿 184 (원저 86편, 종설/correspondence 5/4편, 증례 보고 71편)

3) 08/09년 JGO 게재 논문 93(종설 12, 원저 57, 증례 14) 편중 2010년 SCI(E) 논문에 피인용된 횟수 (2011.1. 현재)는 60건 (국내 저자 인용 20건, JGO 논문에 인용 7건 포함)
2010 IF 예상 현재까지 60/93 ≒ 0.645
* Gynecol Oncol, IF 3.733, rank 5/69; Int J Gynecol Cancer, IF 2.179, rank 20/69

4) 과총 지원 대상 선정: 2010년 지원분으로 54,400,000원

5) 3월호 발간 계획 및 접수 원고 목록 (자료 첨부)
표지 및 내부 도안 변경 (DOI 위치 변경 포함)
광고: IGCS, ESGO, JSGO, clinical trial (LION, DESKTOP III, SHAPE, GOG), etc. abbreviation list, copyright transfer, conflict of interest, etc. open access ejgo.org update

6) 26차 학술대회'학회지 공로상'공문 발송 예정

7)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 목록 (자료 첨부)

8) Medline, SCI core indexing plan

3. 논의사항

1) 2011 review papers
① Diffusion-weighted MR imaging of gynecological disorders: Its diagnostic role (Dr. Motoshima)
② ICON trials: past, present and future, Ledermann
③ Endometrial Cancer: Evolution or Revolution, McMeekin

2) editorial board member 조정, 추가

3) 편집위원회 workshop 2011: 젊은 부인종양 연구자 workshop에 포함

편집위원회 7기 제 16차 회의

- 일 시 : 2011년 5월 25일(수) 오후 6:30~8:00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 석 자 : 유희석, 이종민, 김재원, 김영태, 윤주희, 이준모 (이상 6인)

1. 제 15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1) 2011년 3월호 발간 – 1,000부 제작
표지 및 내부 도안 변경
국내 배포: 456부 (회원 209부, 도서관 173부, 유관학회 60부, 제약사 14부)
국외 배포: 534부 (외국학회+중국 추가 배포 215부, 개인 74부, 기관 3부)
보관: 282부
* 국내외 2,000 여명 대상으로 매회 게재논문 list' emailing

2) 6월호 발간 계획 및 접수 원고 목록
2011년도 원고 접수 현황; 72편 (원저 41편, editorial/correspondence 2/1편, 증례 28편)

3) 26차 학술대회 학회지 공로상 17건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 – 학술대상 1편, 우수논문상(구연) 5편, 우수논문상(포스터) 3편

4) 09/10년 JGO 게재 논문 93 (종설 12, 원저 57, 증례 14)/2011년 SCI(E) 논문에 피인용 횟수 현재 40건 ▶ 2011 IF 예상 현재까지 40/93 ≒ 0.430
* Gynecol Oncol, IF 3.733, rank 5/69; Int J Gynecol Cancer, IF 2.179, rank 20/69

5) 학회지 배포 계획 – 7월, 11월 JSGO, 8월 중국산부학회, 9월 AOFOG

6) 의편협 – 해외 학술지의 XML 파일 가공료 산정 안내

3. 논의사항

1) JGO new homepage: search 기능 보강

2) 2011 review papers
① Diffusion-weighted MR imaging of gynecological disorders: Its diagnostic role (Dr. Motoshima)
② ICON trials: past, present and future, Ledermann
③ Endometrial Cancer: Evolution or Revolution, McMeekin
④ Major clinical research advances in gynecologic cancer in 2011

3) 편집위원회 workshop: 수련위원회 주관 젊은 부인종양 연구자 workshop에 포함 건의
① Effective scientific writing
② How to be a good reviewer?
③ 학술논문 출간 윤리

4) 피인용도 향상 방안 – 회원에게 재공지

5) 우수 reviewer 시상 방안 추진

6)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자 =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 – 주기적으로 공지키로 함

학회 회무보고

교신저자	발표자	제 목	종 별
강순범	정현훈	Preoperative [18F]FDG PET/CT Predicts Recurrence in Patients with Epithelial Ovarian Cancer	학술대상
이재관	민경진	Comparison of the Cervista™PV assays and HPV 4 ACE for the detection of HPV 16/18 in Hybrid capture2 positive media	우수논문상(구연)
김재훈	김선영	Reptin: new candidate of diagnostic and target marker for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김승철	김남희	Isoflavones From Phytoestrogens And Cervical Cancer Risk: A Nested Case-Control Study	우수논문상(구연)
남주현	구유진	Response of First-line Single Agent Chemotherapy for Low Risk Gestational Trophoblastic Neoplasia	우수논문상(구연)
김병기 배덕수	김민규	Synchronous gynecologic malignancy and associated risk assessment regarding Lynch syndrome: Single institution review	우수논문상(구연)
장석준	공태욱	Comparison of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with weekly cisplatin versus monthly fluorouracil plus cisplatin in FIGO stage IIB-IVA cervical cancer: 16-year experience at a single institution	우수논문상 (포스터)
허수영	박성택	Incidence and clinicopathologic behavior of uterine cervical carcinoma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우수논문상 (포스터)
김기태	변정미	Tetraarsenic oxide and cisplatin induce synergism of apotosis in cervical cancer : in vitro and in vivo	우수논문상 (포스터)

편집위원회 7기 제 17차 회의

- 일 시 : 2011년 8월 17일(수) 오후 6시 반~8시
- 장 소 : 학회 사무국
- 참 석 자 : 유희석, 김승철, 장기홍, 이종민, 김재원, 김선영 (이상 6인)

1. 제 16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1) 2011년 6월호 발간 – 1,000부 제작, 국내외 980부 배포, 20부 보관
   2) 9월호 발간 계획 및 접수 원고 목록 – 진행
      표지 및 내부 도안 추가 변경 및 DOI 표기 방법 변경 예정임
   3) New JGO 홈피, www.ejgo.org; mc.manuscriptcentral.com/jgo 일부 logo 교체
   4) 2011년도 원고 접수 현황; 103편 (원저 57편, 논설/종설/교신 4편, 증례 42편)
   5) 26차 학술대회 학회지 공로상 17건,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 목록
      11월 추계 심포지움 ▶ 학회지 공로상, 우수 reviewer상 (가칭) – 명칭은 추가 논의
   6) 09/10년 JGO 게재 논문 93 (종설 12, 원저 67, 증례 14)/2011년 SCI(E) 논문에 피인용 횟수 현재 69건 ▶ 2011 IF 예상치 69/93 ≒ 0.741
      * Gynecol Oncol, IF 3.733, rank 5/69; Int J Gynecol Cancer, IF 2.179, rank 20/69
   7) 학회지 배포 계획 – 9월 AOFOG, 10월 중국부인종양학회, 11월 aSGO, JSGO
   8) 12월호: aSGO meeting report(Dr. Chia, 싱가포르), editorial(장기홍 교수님), presidential address 게재 예정
3. 논의사항
   1) 원저 모집 독려: aSGO 접수 초록 제출자에게 JGO에 원고 제출 권유
   2) 피인용도 향상 방안:
   게재 승인 후 빠른 시일 내에 epub 추진, less than 2 mo
   좋은 논문은 3월호에 게재
   *1,4,7,10월로 간기 변경 추진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12년 2편→13년 1편→14년 중단) 증례보고 게재 축소
   3) 편집위원 교체/보완: 2008년 6월 이후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Pedro Ramirez, Dennis Chi, 호주 (방사선종양학자), 중국 (Chunling Chen, 상해), 독일 (Achim Schneider) 등 추가, Jeffrey Tan은 면직키로 함.
   4) 편집위원회 2012 workshop: IF 발표에 즈음해 추진
   5) 기타: 학진 등재후보지→등재지 노력키로 함
   reviewer guideline 제작 – JGO 인용 권유 문구 삽입
   other DB application – 임명철 선생 담당
   permission form of JGO (figure, table, etc) 제작, upload

편집위원회 7기 제 18차 회의록

- 일 시 : 2011년 10월 13일(수) 오후 6:30 ~ 8:00
- 장 소 : 학회 사무국
- 참 석 자 : 이준모, 유희석, 이종민, 김재원, 김선영 (이상 5인)

1. 제 17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1) 2011년 9월호 발간 – 1,500부중 국내외 1,004부 배포/496부 보관, 400부 추가 제작 예정
   학회지 국외 배포 – AOFOG 200부, 10월 CSGO 500부/11월 ASGO 250부/JSGO 150부 배포 예정
   2) 12월호/2012년 1월호 발간 계획 및 접수 원고 목록
   ASGO 관련: 12월호에 meeting report (Chia 에게 의뢰), editorial 게재

3) DB 추가 – CAS, EBSCO, BIOSYS / 편집위원 교체/보완
4) 2011년도 원고 접수 현황; 130편 (원저 72편, 논설 2편/종설 5편/교신 2편, 증례 49편)
5) 26차 학술대회 수상자 –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 목록
6) 11월 추계 심포지움 ▶ 학회지 공로상, ▶ JGO Best Reviewer Award 1~2명 시상 예정
7) 09/10년 JGO 게재 논문 93 (원저 67, 종설 12, 증례 14)/2011년 SCI(E) 논문에 피인용 횟수 10월 13일 현재 93건 ▶ 2011 IF 예상 현재까지 93/93 ≒ 1.000
* 2010 IF Gynecol Oncol, 3.760, rank 5/77; Int J Gynecol Cancer, 1.558, rank 42/77
* SJR ranking in 157 Ob/Gyn: GO, 2; IJGC, 19; JGO, 52
SJR ranking in 233 Oncol: GO, ?; IJGC, 87; JGO, 123, retrieved from www.scimagojr.com
8) QR code – 광고 전단에 적용
9) 2012년부터 발행월 변경→1,4,7,10월 초

3. 논의사항
1) 원저
KSOG, ASGO 초록 제출자에게 원저 제출 권유 mail, 서신 – SCI, SJR 내용 포함
KGOG 2001 원고 유치
Highly cited paper 시상 – 추가 논의 요
2) 종설
History of JGOG, KGOG, TGOG like "The History of the Gynecologic Cancer Study Group (GCSG) of the Japan Clinical Oncology Group (JCOG)", Jpn J Clin Oncol 2011;41:1156-61.
– 추진
3) 향후 2~3년 내에 printed version of JGO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함.
4) ASGO President Elect – T. Kamura: JGO는 계속 KSGOC 관할로 발간 지속

제 1차 수련위원회

- 일 시 : 2011년 2월 11일(금) 오후 7시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이준모, 류기성, 배재만, 송은섭, 유상영, 윤주희, 이해남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상견례
3. 토의사항
–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샵 준비의 건 (이하 "워크샵")
1) 워크샵 참석 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참석률 개선안 토의
; 참석 대상의 확대를 위한 행사 타이틀 수정에 관한 토의 결과 현행 유지 결정. 참석 대상자들의 근태 현황을 고려하여 참석률 개선 위해 주중 행사에서 주말 행사로 개최일 이전 결정, 하계 휴가기간, 국재 학술 대회 일정 고려하여 9월초로 결정함.
2) 워크샵 개최 일시
; 2011년 9월 3일(토) 9:00AM
3) 워크샵 개최 후보 장소 선정
;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천된 후보 장소들 중 예약 가능한 곳으로 차기 모임시 확정키로 결정함.
후보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대강당 /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 건국대학교병원
4) 워크샵 프로그램
– 선정 기준 : 젊은 의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연제를 선정, 진료권고안이 최근 개정된 바 연제로의 선정시 최신 지견 습득 및 향후 연구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연구의 기초 지식 강의
session I 부인암 진료권고안
세부 연제 :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NCCN guideline 참조)
연자 추천 : 부인암 진료권고안 소위원회 각 세부 분과별 간사 등(소위원회 협조 요망)
연자별 강의 시간 : 1시간 내외
Lunch
Session II 임상 연구 방법
세부 연제 : 연구 기금 조성하는 방법, 실험실 설립과 운영법, 임상연구 수행과 IRB
연자 추천 : 조치흠, 김재훈, IRB 전문가 등
연자별 강의 시간 : 30분
Session III 의학 논문 작성법
세부 연제 : 논문 검색법, Endnote를 비롯한 전산 프로그램 사용법, 임상 통계
연자 추천 : 주웅, 배재만, 도서관 사서 등
5) 기타 사항
– 행사장 규모 : 연 인원 최소 50인~ 최대 150인 예상에 맞춰서 섭외
– Endnote 프로그램 무상 배포(CD/USB 등)

학회 회무보고

– 전년도 행사시 무상 배포에 따른 책자 부족 문제 해결안
;200권 인쇄, 5,000원 유상 판매, 행사 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강의 PDF파일 배포
– 등록비 : 무료 행사 시 사전 등록 후 미참석자 증가 문제 제기되어 전년도 수준 동결 결정 (사전 1만원, 현장 2만원)
a. 상기 토의 사항은 회장단, 행사 연관 주요 위원회(학술, 기획, 재정, 권고안 소위) 검토 승인 후 확정
– 워크샵 연제 Bank 운영 : 논문 작성법, 연구 방법론, IRB, 실험실 운영, 부인암 수술 방법, 전산프로그램 운용법 등 지속적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필요한 강의 연제 개발, 연수 출발 전 준비 과정에 대한 강연 (메일 보내기 등)
– 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 : 전산 기반 설문 조사를 지양하고 현장 지면 설문으로 결정
;2011년 3월 12일(토)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임상권고안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면 설문 결정
– 예산 : 복강경 등 기구 관련 업체 중심의 협조 (부스 등)
6) 제 2차 수련위원회 일정
– 3월 말 예정(추후 3월 중 확정)
– 2차 회의 안건
① 워크샵 프로그램 확정 (본 회의 전 위원장, 간사, 배재만 위원, 사무총장이 프로그램 가안 준비) – 설문조사 결과 반영
② 장소 섭외 등 준비 상황 점검
③ 워크샵 프로그램 은행 운영 건
④ 수련 교육 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안

제 2차 수련위원회

- 일 시 : 2011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이준모, 류기성, 배재만, 성석주, 유상영, 윤주희, 이택상, 이해남 (이상 8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2011년 제 1차 수련위원회 회의록 보고 –무수정 통과
3. 토의사항
1)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샵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확인 (이하 "워크샵") (결과지 첨부)
2) 워크샵 프로그램 세부사항 결정
: 부인암 진료권고안을 다시 인쇄해서 워크샵에서 나눠줌
: 원고는 powerpoint 파일로 받기로 하며 인쇄용과 강의용을 따로 받기로 함, 인쇄용은 30장 이내로 정함

개회		회장 이준모 (차의대)
Session I	Practice Guideline for Gynecologic Cancer Version 2.0, 2010	좌장 김승철 (이화의대)
9:00 – 9:10	진료 권고안 overview	박상윤 (국립암센터)
9:10 – 9:40	Cervical cancer guideline	주웅 (이화의대)
9:40 – 10:10	Ovarian cancer guideline	김태중 (성균관의대)
10:10 – 10:40	Endometrial cancer guideline	이택상 (서울의대)
10:40 – 10:50	Q & A	
10:50 – 11:10	Coffee break	
Session II	학술논문 작성법	좌장 김영태 (연세의대)
11:10 – 11:40	Effective scientific writing	민양기 (서울의대)
11:40 – 12:10	How to be a good reviewer?	임명철 (국립암센터)
12:10 – 12:40	학술논문 출간 윤리	이정원 (성균관의대)
12:40 – 12:50	Q & A	
12:50 – 13:30	Lunch	
Session III	임상연구 방법	좌장 유희석 (아주의대)
13:30 – 14:00	연구기금 조성	조치흠 (계명의대)
14:00 – 14:30	임상연구 기획단계에서 범하기 쉬운 통계적 오류	김수녕 (건국의대)
14:30 – 15:00	실험실 설립과 운영 방법	김재훈 (연세의대)
15:00 – 15:10	Q & A	
15:10 – 15:30	Coffee break	
Session IV	부인암 수술 방법	좌장 류기성 (가톨릭의대)
15:30 – 16:00	Nerve preservation radical hysterectomy	이윤순 (경북의대)
16:00 – 16:30	Vaginal and vulva cancer surgery	박종택 (차의대)
16:30 – 17:00	Complication in laparoscopic surgery	허수영 (가톨릭의대)
17:00 – 17:10	Q & A	

3) 워크샵 발표연자 추천
;2주 뒤까지 각 연자들에게 연락해서 연자 수락여부를 확인하기로 함
4) 워크샵 예산준비 방법 논의
5) 워크샵 직전에 필요시 3차 수련위원회 모임을 가지기로 함

제 1차 부인암예방위원회

- 일 시 : 2011년 1월 12일(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김승철, 권용일, 김병기, 김우영, 성석주, 윤주희, 주 웅 (이상 7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안건
– 2011년도 부인암예방위원회 사업계획: 올해 사업계획으로 아래 4가지를 선정함.

1) 전문가를 위한 HPV 예방백신 가이드라인 제작
2) 일반인을 위한 HPV 예방백신 가이드라인(홍보물) 제작
3) 부인암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4) 유방암 예방 관련 홍보 (장기 계획안)
-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 권고안 개정의 건
1) 2가 백신 및 4가 백신의 전문가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작키로 함.
2) ACIP recommendation을 기반으로 하고 현재까지 출간된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함.
3)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3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춘계학술대회 시 draft를 발표하여 회원 전체의 의견을 듣기로 함.
4) 가이드라인 제정 팀 구성
2가 백신 : 김승철, 권용일, 최석철, 김용범, 김정식, 주 웅(간사)
4가 백신 : 김병기, 성석주(간사), 송은섭, 김용욱, 강석범, 김우영

3. 토의사항
- 대국민 홍보 사업을 위한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부인암예방위원회 조인트미팅을 추진하기로 함.
- 부인종양학회 주최 백신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여부, 향후 행사 개최 방식은, 회장님, 사무총장님, 상임이사회, 학술위원회 등의 결정을 따르기로 함.
- 방송을 통한 공익 광고를 타학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추진하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함. (조인트미팅 시 논의)
- 권고안 발간 형식
①부인종양학회 고유 표지(학술대회지 표지)로 디자인하여 가다실, 서바릭스 각 권으로 발간키로 함.
②부제를 가다실, 서바릭스 등 상품명을 쓸지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함.
-권고안 형식 논의
①양쪽 권고안의 목차, 세부제목, 분량, 도표 삽입 등은 가능한 한 대칭적으로 맞추기로 함.
②머리말(권고안 작성 원칙 등 기술), 자궁경부암 역학 등 양쪽에 공통되는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기로 함.
- 2가 백신 권고안 초안 검토
①논문 발간이 되지 않은 데이터(초록 발표 등)의 인용 및 출처 표시 여부
;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②접종 연령 범위 및 부연설명(면역성 근거 등) 표시 여부
;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③수유부에 대한 권고안
;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기타 논의 사항(공청회에서 토의할 내용)
①권고안의 학술적 근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 출간 논문, ACIP 권고안 등
②정보 제공만 하고 선택권을 환자에게 줄 것인지 학회 차원의 유권해석을 줄 것인지

제 2차 부인암예방위원회

- 일 시 : 2011년 2월 9일(수) 오후 6:30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김승철, 강석범, 권용일, 김병기, 김용욱, 김정식, 성석주, 송은섭, 윤주희, 주 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제 1차 부인암예방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토의사항
- 〈자궁경부암예방백신 임상권고안〉(가제) 및 영문 〈Practice guideline for HPV vaccine〉(가제) 선정.
; 공청회에서 확정예정
- 공청회 개최 건
일시 : 2011년 3월 12일 10:00 ~ 12:00
장소 : 여의도 성모병원 / 이대목동병원 중 결정키로 함.

제 3차 부인암예방위원회

- 일 시 : 2011년 2월 24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다봉
- 참 석 자 : 이준모, 김승철, 김영탁, 강석범, 권용일, 김병기, 김용욱, 김우영, 김정식, 성석주, 윤주희, 주 웅, 최석철 (이상 13명)

I. 위원장님 인사말씀
II. 제 2차 부인암예방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III. 토의사항
- 1차 공청회 의제 선정 :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공청회 시, 표결에 붙이기로 함.

1. 임상권고안의 국문, 영문 제목
: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임상 권고안(Practice guideline for HPV vaccination)

2. 임상권고안의 부제 표기(법률자문 참조)
: 가다실, 서바릭스 상품명 표기키로 함.

3. 임상권고안의 scope, 목적
1) 자궁경부암 백신의 활성화 : 대상 연령을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표시
2) 1차 진료 의사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권고안을 통한 법적 분쟁 보호

4. 임상권고안 작성시의 참고문헌 범위
1) 포스터 발표나 초록 발표까지 인정
2) ACIP 권고안을 참고문헌으로 인정

5. 양社 수록내용의 균형문제
1) 직접 비교 연구 수록하지 않음
2) 양사로 하여금 권고안 cross check 하게 함.

제 1차 정보통신위원회

- 일 시 : 2011년 3월 17일 (목) 19:00
- 장 소 : 취영루 건대시티점
- 참 석 자 : 김수녕, 김기형, 김찬주, 남계현, 이철민, 윤주희, 이선주 (이상 7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논의사항
1) 학회 홈페이지 개선점
①구글 검색 시 예전 사이트에 접속되던가 엉뚱한 사이트에 접속되는 일이 있다.
→검색 시 많은 키워드를 설정하여 일정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업체 (인포랑) 관계자의 분석
→홈페이지의 이미지, 일정, 배너의 배치가 부적절하다.
→타학회 홈페이지에는 스폰서 라운지가 있어 학회의 광고비 획득 및 스폰서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본 학회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학회지 및 소식지를 웹진으로 하면 초기 구축 비용이 드나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위의 내용들을 충족시키려면 홈페이지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수천만원의 초기 구축비가 소요된다.
③모바일용 홈페이지를 만들자. (김수녕 위원장님)
→가장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따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함 (업체)
④회원관리, 연회비 관리, 학술대회 등의 사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철민 선생님)
→사무자동화로 학회비서의 업무량 및 비상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체에서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고 함.
⑤홈페이지에 SNS (e.g., twitter, facebook…) 접속 서비스를 개설하자 (김수녕 위원장님)
⑥홈페이지에 있는 타학회 링크사이트를 별도의 위치에 배치하고 이 위치에 주요 스폰서의 광고 배너를 설치하여 광고비 수주를 올리자 (김수녕 위원장님)
⑦T log-in이 가능하게 하자
⑧홈페이지에 공지사항, e-letter, QR code 등을 신설하자
2) 홍보위원회의 광고 협조 요청
– 위에서 언급된 내용이 설정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어느 업체까지 실어줄지는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3) 학회장님께서 국제교류위원회의 이벤트 진행 사항 및 사업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다고 표명하심
–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음
〈결론〉
초기 구축 비용이 커서 상임이사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광고비 수주, 사무 간소화 및 모바일 환경 구축, SNS 도입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학회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 2차 정보통신위원회

- 일 시 : 2011년 5월 24일(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김수녕, 김찬주, 남계현, 이철민, 윤주희, 이선주 (이상 6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제 1차 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논의사항
1) 홈페이지 제작회사 추천
– M2COM
– 주식회사 슈빅
– 인포랑
2) Domain 변경에 관한 건
– 현 www.ksgoc.or.kr 에서 새로운 domain으로 바꿀 예정
ㄱ. www.ksog.org
ㄴ. www.sgo.or.kr (정보통신 위원장님께서 확보)
이 둘 중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확보할 예정임.

– 대한콜포스코피연구회는 www.colposcopy.or.kr 로 예정
3) 위 선정된 업체의 시안을 보고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2011년 6월 13일 업체 선정 예정.

제 3차 정보통신위원회

• 일 시 : 2011년 6월 13일(월) 오후 7시
• 장 소 :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국
• 참 석 자 : 이준모, 김수녕, 김상운, 김찬주, 남계현, 이철민, 윤주희, 이선주 (이상 8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제 2차 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논의사항
1) 홈페이지 제작회사 프리젠테이션
– M2COM
– 인포랑
– 주식회사 슈빅 : 새 프로그램 개발 중이라 자진 불참.
2) 홈페이지 제작회사 선정 – 인포랑(주)
ㄱ. 현재 학회 홈페이지를 관리 중인 회사로서 검증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였음.
ㄴ. 본 학회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의 가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음.
– 상기 이유로 위원들의 동의 하에 선정되었으며, 2011년 7월 12일(화) 7시에 업체와 정보통신위원회 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임.

제 4차 정보통신위원회

•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후 7시
• 장 소 : 건대 스타시티 취영루
• 참 석 자 : 김수녕, 김대연, 윤주희, 이선주, 이철민 (이상 6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제 3차 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논의사항
1) 홈페이지 제작
– 7월 26일, 시안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위원과의 의견 재교환.
– 11월 3일 이전까지 홈페이지 제작 완료
– 영문 홈페이지 및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도 동시에 제작.
2) 홈페이지 시안에 대한 의견
ㄱ. 화면을 넓게 꽉 채우고, 글씨를 크게 할 것
ㄴ. 현 홈페이지에 있는 수술 사진을 빼고 글자와 로고 위주의 혁신적인 디자인.
ㄷ. 현 log-in 은 우측 상단으로 올릴 것
ㄹ. 배너 광고는 우측에 배치하고 타학회 링크는 링크 사이트로 감출 것.
ㅁ. 각 사이트의 내용은 큰 골격은 업체의 제안대로 구성하되 글씨가 빨리 뜨도록 변경.
ㅂ. 지난 학술대회 자료는 slide, movie 항목으로 나누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을 변경하여 잘 보이게 할 것.
ㅅ. 기타 세부 내용은 시안 제작 후 의견 교환으로 수정.
3) 기타
– website 주소 변경을 확정하고 포털 사이트 검색 시 바로 학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다.
– 로고 변경을 조속한 시간 내 완료.

제 5차 정보통신위원회

• 일 시 : 2011년 7월 26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사리원
• 참 석 자 : 이준모, 김수녕, 김찬주, 윤주희, 이선주, 이철민 (이상 6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2011년 제 4차 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 보고 –무수정 통과
3. 논의사항
– 학회 홈페이지 개정 및 수정을 위한 업체 제작 시안 검토
a. 홈페이지 시안 (배치, 색상, 항목, 내용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수정
– 학회장님의 시안 검토 및 확인
a. 학회장님 의견 시안 반영.
– 학회와 업체와의 계약
– 기타

학회 회무보고

제 6차 정보통신위원회

- 일 시 : 2011년 10월 4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르네상스호텔 가빈
- 참 석 자 : 이준모, 김수녕, 김기형, 김상운, 김대연, 김찬주, 남계현, 남은지, 이선주, 윤주희 (이상 10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2011년 제 5차 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3. 논의사항
   - 전반적인 스토리보드는 기대 충족하나 color 조절이 필요.
   - 의학산하단체, 해외학회/협회, 수련병원명은 학술위원회와 상의 후 가감예정.
   - 차기 학회 점심시간에 위원장님이 간단한 인사 후 새로운 홈페이지 demonstration.
   - 추후 detail contents를 채움.

제 1차 주위원회 연합회의

- 일 시 : 2011년 2월 7일(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김승철, 김영탁, 남주현, 오병찬, 윤주희, 이재관, 이준모, 주 웅 (이상 8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토의사항

①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한 전문가 심포지움 개최
- 주관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 후원 : MSD
- 차수/일정 : 1차 2011년 5월 14일–15일 신라호텔
  2차 2011년 5월 28일–29일 경주 힐튼 호텔
- 참석인원 및 대상자 : 전임강사이상, 부교수이하 각 차수별 약 50인
- 프로그램 : 1 일차 – 강의 20분, 3연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scientific update, 효율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
  2일차 – 강의 20분, 3연제, 호르몬 대체요법 scientific update

→개최 90일전 제약협회에 사업 계획 제출요망, 2011년 5월 12일까지 심포지움 강의 연제 및 연자 결정 (학술위원회 추후 결정 요망) 및 심포지움 개최 계획 수립, 평점 신청요망

②부인암 전반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 후원 가능성 있는 질환인 자궁경부암 위주의 홍보 사업 계획
- 대한 산부인과 학회의 여성의 날 행사와 중복을 피하는 방송매체, 특히 공익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사업 제안
- GSK : 자궁경부암 벡신 가이드라인 update시 대국민 홍보 후원에 긍정적이며 부인종양학회 선정 강사진 의뢰 (학술위원회 추후 결정 요망)
- MSD :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 후원에 부정적의견, 전문가 위주의 홍보사업 후원에 긍정적

③펀드레이징 관련 수익모델 개발
- 회원 대상 설문, data 수집 연구 모델 개발 (연관 제 위원회 협의 요망, 기획/재정/학술/부인암 예방 위원회) : 연구비를 통한 학회 기금 조성

④춘계 학술대회 등록비에 관한 건
- 연회비 : 기존의 2만원 현행 유지, 추후 상승 요인 발생시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 고려
- 등록비 : 회원 기존의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전공의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비회원은 전공의와 동일

기타 토의 사항
- 춘계 학술 대회 홈페이지 등록 화면에 연회비 관련 안내문 공지 : 각종 수상 지원시 연회비 미납시 지원 자격 무효에 대한 공지, 사전 등록시 연회비 납부여부 확인란 추가, 신규 회원의 입회비 납입 독려
- 예산 절감을 위해 학술 대회 공지 우편물 발송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
- JGO hard cover 발송 건 : 국내외 기관 배포는 현행 유지, 연회비 미납 회원님께는 예산 절감을 위해 발송 중단 사전 고지 후 시행 (메일을 통한 공지후 2011년 2권부터 시행), 연회비 납부 회원님께도 hard cover 수령여부 의견 질의 후 시행

제 1차 보험위원회

- 일 시 : 2011년 4월 2일(토) 오후 2시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김미진(산부인과학회 보험차장), 김상운(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박상윤(위원장), 배재만, 이광범, 이정훈 (산부인과 TFT위원 겸 보험위원), 이준모(회장), 이철민 (산부인과 TFT위원), 임명철(간사), 주원덕, 최석철, 황종하 [가나다 순]

약어설명 1. CPT,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2. 3 axis (target organ / procedure / approach)

박상윤위원장모두발언

1. 76년 급여 기준 설립이래, 현재 수술 및 노력에 적합한 수가 개정할 수 있는 기회임
2. 현재 수술 시행되는 유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필요함
3. 4월말까지 행위정의 명확히 해야 함.

이철민 / 이정훈 발표

1. 2013년부터 5년간 새로 개정된 수가 체계로 20%로 점진적으로 반영됨
2. 새로 행위 정의할 항목 명확히 정해야 실무 진행 가능함
3. 3가지 안 제시함

A. 미국 CPT기준 참조
B. 현행 국내 수가 개정
C. 각 행위별 수가 창설

김상운

1. 수술 종류를 정확히 분류할 필요 있음.
2. 업무 강도 및 수가는 의협에서 전체적으로 조절할 것임

토론결과요약

1. 행위별 수가로 가는 것이 현재 수술을 반영하기 가장 좋음
2. 현재 수가 체계를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고, 현재 수가에 빠진 항목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행위별로 정의된 수가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
3. 각 병원 별로 행위정의에 과제 분배하기로 함.
4. 복강경에 대한 수가는 외과, 비뇨기과 등과 전체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현재 수가 체계에서 각 항목에 대한 행위정의, 즉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에 대한 구분된 행위정의로 수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위정의" 과제 분배 내역 (추후 과제 분류, 정의, 담당자 지정 예정임, 가안임.)

1. Vulva & vaginal ca – (아산병원)
2. Trachelectomy & hysterectomy – (국립암센터)
   A. 개복
   B. 복강경
3. LND – (가천 길 병원)
   A. 개복
   B. 복강경
4. Perinectomy of paracolic gutter & mesenteric peritoneal fulguration – (국립암센터)
5. 난소암 복강경 기본 술식 – (건국대)
6. Laparoscopic transposition of ovary – (강북삼성병원)

Format 작성 분배: 이정훈 (강북 삼성 병원)
본 내용은 4/8 이사회 보고예정임.
Written by 임명철 / 이정훈

제 1차 국제교류위원회

- 일 시 : 2011년 3월 16일(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학회사무국
- 참 석 자 : 이준모, 김영태, 김재원, 남은지, 윤주희, 전섭 (이상 6명)

1. 위원장님 인사말씀
2. 상견례
3. 안건

〈1〉 학술대회 초청 외국인 추천, 교신, 영접 체계 정비 및 개선

1) 외국 석학과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

가. 부인종양 콜포스코피 학회에 초빙되어 온 연자들을 명예회원 또는 학술회원으로 임명

논의 사항→최근 2~3년 동안 부인종양학회 및 ASGO 초청연자 중 선정하여 회원증을 증정하고, 매월 부인종양 콜포스코피 학회지를 보내주는 등의 benefit을 제공하기로 함.

나. 정기적인 연락을 학회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명부를 만들어 연하장이나 학회 brochure를 발송.

2) 연자 선정 추천 및 영접 체계 정비 및 개선안

가. 현재 국내 여건 상 서구의 유명 연자를 섭외하는 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필요함.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예)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단기 교수로 임용된 Gycologic Oncologist Dr. Bruce Pastner

나. 연자 선정 후 영접 체계 정비안

– 현재 연자 선정 시 대부분의 경우 발표 주제 보다는 안면이 있는 외국 연자 위주로 섭외가 진행됨.

논의 사항→ 2년 간 4~8명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연자를 pooling해서, 연자보다는 subject에 맞춰서 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학술위원회와 co-work을 하여 추진하기로 함.

– 연자 섭외 후 일정 조정 등을 위한 접촉이나 영접 시 학회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로 영접 관계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학회 회무보고

– 이를 학회 차원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함.

〈2〉 국제교류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안

1) 2011년도 국제교류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가. 해외연수를 다녀 온 교수들의 연수장소 및 mentor를 부인종양학회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Junior 교수들이 연수 장소 선정에 도움.

– 해외 연구진과 collaboration이 필요할 때 이미 연수 다녀온 교수들이 중개 역할을 해줄 수 있음.

논의 사항→ 최근 3년 정도 연수를 다녀온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수장소, mentor, 연구주제를 조사하여 list-up하기로 함

→ 정보통신위원회와 co-work을 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학회 소식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나.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해외로부터 산부인과 연수 문의 오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활성화 함.

– 현재는 이종욱 fellowship등 재단이나 개인적인 문의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으로부터 문의가 오는데, 이를 중개하여 각 병원으로 distribution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연수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각 병원의staff member에 대한 정보 및 진행되는 연구 현황, 임상 활동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학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국제교류 위원회 중/장기 발전 계획

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제3국 국제 학회와 MOU 체결.

– 중장기적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

나. 국제학회와 MOU 체결 후 중장기 운영방안

– 미국 등 선진국들과 exchange resident training program을 추진.

– 양국 간 공통 e-training course system 등을 개발하여 web 상에서 공유.

– 미국이나 유럽 등의 학회에 수련의가 참여할 때 discount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제 3세계 (러시아, 중국) 국제학회와 연계하여, 국제환자 유치 증가에 기여하고, 문의오는 환자 및 병원들에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도록 함.

교과서편찬위원회

-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오후 7시
- 장 소 : 취영루
- 참 석 자 : 이준모, 남주현, 유희석, 김병기, 김승철, 김재원, 박상윤, 박영한, 유상영, 윤주희, 이선경, 장석준, 조치흠 (이상 13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위원장님 인사말씀
3. 경과보고
4. 토의내용
   1) 교과서 최종 발간은 2012년 4월 춘계학술대회까지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1년 11월 추계심포지움까지는 draft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2) 개정 교과서는 기존의 산부인과학회 발간 '부인과학' 의 종양파트보다 내용과 분량을 높은 수준으로 한다.
   3) 집필진은 실제로 부인종양에 관련된 사람으로 하고, 각 학교의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하되, 조교수의 경우 연수를 다녀온 경우에 한한다. 국립암센터와 원자력의학원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현재 '안'에 있는 단원 책임자는 논의 후 교체할 수 있다.
   5) 단원 책임자가 간사 및 위원을 선정하여 집필 책임을 진다.
   6) 단원 책임자는 2011년 춘계학술대회 전까지 간사와 집필 위원을 선정한다.
   7) 후보 출판사와 접촉하여 견적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출판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8) Principles and practice of gynecologic oncology (5th ed, LWW, 2009), BerekandHacker's gynecologic oncology (5th ed, LWW, 2010), Clinical gynecologic oncology (7th ed, Mosby, 2007)의 목차와 내용을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modification 한다.
   9) 그림, 표 등은 가능하면 국내 데이터를 많이 인용하도록 한다.

회원동정

· 안웅식 교수, 차기 국제광역학학회장 선임 [2011-06-24]

안웅식 가톨릭의대 교수(산부인과)가 최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3차 국제광역학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광역학학회 상임이사와 차기 학회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2013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14차 학술대회(14th IPA world congress)에서 대회준비위원장도 맡게됐으며, 차기 학술대회에는 총 27개 회원국 1,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교수는 부인암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감각제와 레이저를 이용해 암을 진단, 치료하는 광역학 분야의 선구자로 꼽힌다.

지난 2001년 대한광역학학회를 발족시킨 초대 멤버 중 한 명으로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27개 의료기관에서 광역학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광역학학회는 광역학 치료와 진단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광역학 치료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설립된 단체로서 2년에 한 번씩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한편, 안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회장을 맡아 세계 광역학 진단 치료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 **울산대병원 권용순 교수**, 美로부터 복강경 최신 수술법 인정받아 울산대병원 산부인과 권용순 교수의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선근종절제술과 자궁근종절제술이 미국 외과저널 및 복강경학회로부터 최신 수술법으로 인정받았다.

울산대병원은 21일 "권용순 교수의 부인과 복강경 수술 방법 소개 및 결과 자료가 국내 처음으로 미국 외과 저널과 복강경학회의 주요저널을 통해 논문과 수술 장면 동영상이 함께 소개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앞으로 전세계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절제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의학전문지인 미국의 의학전문지 'Journal of Laparoendscopic &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and Part B, Videoscopy'와 복강경학회 저널 'Surgical Endoscopy' 등에서는 권 교수의 연구논문과 수술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2011년 연회비 납부명단

강순범	곽현성	권상훈	권용일	기경도	김경태	김기태	김기형	김동호	김명환	김문홍
김민규	김성훈	김영석	김영재	김재원	김재훈	김정식	김찬주	김태중	김학순	김희숙
나연식	남계현	남주현	노주원	동서연	류기성	박노현	박상일	박연진	박일수	박태철
배동한	백지흠	변정미	서동수	성석주	손영진	송용상	신소진	심재철	안현일	유상영
윤만수	윤주희	이 찬	이경복	이대우	이대형	이두진	이선경	이선주	이성종	이세용
이용우	이윤순	이응수	이재관	이정원	이정원	이종민	이종학	이준모	이철민	이해남
임명철	장기홍	전 섭	정난희	정대훈	정언석	정현훈	조삼현	조영래	조치흠	조한별
주원덕	차동수	차순도	최석철	최영준	최호선	한경희	한승수	허수영	홍진화	

2011년 주요 학회 일정

3rd Meeting of the Society of European Robotic Gynaecological Surgery (SERGS)
September 1~3, Leuven, Belgium
www.sergs.org

XXIth World Congress of ISSVD
September 3~8, Paris, France
www.issvd.org

Robotics in Gynecology
September 7~9, New York
www.mskcc.org/roboticscourse

17th ESGO 2011
September 11~14, Milan, Italy
www.esgo.org

AOFOG 2011
September 23~27, Taipei, Taiwan
www.aofog.org

ECCO 16 – ESMO 36 - ESTRO 30
September 23~27, Stockholm, Sweden
www.ecco-org.eu

XVIth World Congress on GTD
October 16~19, Budapest, Hungary
www.isstd.org, www.hbltravel.hu

43rd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 Colposcopy
13th KGOG Symposium & Workshop
9th Korea-Japan Gynecologic Cancer Joint Meeting
November 3, Seoul, Korea
www.ksgoc.or.kr. www.kgog.org

2nd Biennial Meeting of ASGO
November 3~5, Seoul, Korea
www.asiansgo.org

11th SIOG
November 4~5, Paris
www.siog.org

40th AAGL
November 6~10, Hollywood, Florida
www.aagl.org

51st Meeting of Jap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November 25~26, Krume, Japan
www.jsgo.gr.jp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varian Cancer
December 2~3, Houston, Texas
wwww.mdanderson.org/conferences

12th APAGE Annual Meeting
December 9~11, Osaka, Japan
www.apagemit.com

84th GOG Semi-Annual Meeting
January 27~29, San Diego
www.gog.org

Excellence in Oncology
February 22~25, Istanbul, Turkey
www.excellence-in-oncology.org

43rd SGO Annual Meeting
March 25~28, Austin, Texas
www.sgo.org

編輯後記

다사 다난했던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부인종양학회는 올해도 열심히 발전하였고 특히 젊은 교수들이 해외학회에서 구연발표도 부쩍 많이 하고 국외 전문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활발하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점차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저변이 넓어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특히 올해 제 2회 아시아 부인종양학회(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SGO)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본 학회는 아시아를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여러 젊은 교수들이 국제학회 참석 후 느꼈던 소회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SGO, IGCS, IPC 등의 부인종양 관련 학회 참관기와 제 4차 Ovarian Cancer Consensus Conference (OCCC) 참관기를 실었습니다. 또한 AACR과 같은 기초 암학회 동향과 최근 미국 엠디엔더슨암센터에서 기초 연구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선주 교수의 연수기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회원님들께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지 소위원회 위원장 김 병 기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2011년 11월 현재)

회 장
이준모(가톨릭의대)

부회장
남주현(울산의대)
김성한(고신의대)

사무총장
윤주희(가톨릭의대)

부인암진료권고안소위원회
위원장 : 박상윤(국립암센터)
부위원장: 김병기(성균관의대)
간사: 이정원(성균관의대)

명예회장
이태호(산부인과학회 명예이사장)
김승조(차의과대학)
박찬규(연세의대)
이효표(건국의대)
목정은(관동의대)
문 형(한양의대)
배덕수(성균관의대)
김재욱(관동의대)
남궁성은(가톨릭의대)
강순범(서울의대)
이규완(고려의대)
김경태(한양의대)

고 문
곽현모(산부인과학회 명예회장)
김두호(산부인과학회 전임이사장)
신면우(산부인과학회 명예회장)
홍성봉(산부인과학회 명예회장)

감 사
남상륜(충남의대)
박찬용(가천의대)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수련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윤리위원회	보험위원회	홍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인암예방위원회
남주현(울산의대)	김영탁(울산의대)	유희석(아주의대)	배덕수(성균관의대)	오병찬(전북의대)	류기성(가톨릭의대)	김영태(연세의대)	이선경(경희의대)	박상윤(국립암센터송)	용상(서울의대)	김수녕(건국의대)	김승철(이화의대)
김용만(울산의대)	김대연(울산의대)	김재원(서울의대)	최철훈(성균관의대)	이재관(고려의대)	이해남(가톨릭의대)	남은지(연세의대)	박동춘(가톨릭의대)	이정훈(성균관의대김)	용범(서울의대)	이선주(건국의대)	주웅(이화의대)
강석범(국립암센터)	권용일(한림의대)	김석모(전남의대)	강석범(국립암센터)	김석모(전남의대)	김재훈(연세의대)	권상훈(계명의대)	김용만(울산의대)	고석붕(대구가톨릭의대)	김홍곤(원광의대)	권용순(관동의대)	강석범(국립암센터)
김병기(성균관의대)	김석모(전남의대)	김승철(이화의대)	김기형(부산의대)	김용만(울산의대)	배재만(건국의대)	김석모(전남의대)	김재원(서울의대)	고재환(인제의대)	남상륜(충남의대)	김기형(부산의대)	권용일(한림의대)
김석모(전남의대)	김재원(서울의대)	김영태(연세의대)	김대연(울산의대)	김용범(서울의대)	성석주(차의과대학)	김태진(관동의대)	남경현(순천향의대)	배재만(건국의대)	박진완(단국의대)	김대연(울산의대)	김병기(성균관의대)
김재원(서울의대)	김재훈(연세의대)	김종혁(울산의대)	박철민(제주의대)	김원규(고신의대)	송은섭(인하의대)	이택상(서울의대)	남상륜(충남의대)	이광범(가천의대)	박현(차의과대학)	김상운(연세의대)	김용범(서울의대)
김재훈(연세의대)	김태중(성균관의대)	박영한(한림의대)	성석주(차의과대학)	김태진(관동의대)	송재윤(고려의대)	장기홍(아주의대)	박영한(한림의대)	이재관(고려의대)	심재철(동국의대)	김찬주(가톨릭의대)	김용욱(가톨릭의대)
김태웅(가톨릭의대)	김태진(관동의대)	이종민(경희의대)	이재관(고려의대)	박진완(단국의대)	유상옐(원자력의학원전)	섭(순천향의대)	박충학(단국의대)	이정원(성균관의대)	이근호(가톨릭의대)	남계현(순천향의대)	김우영(아주의대)
김태진(관동의대)	박동춘(가톨릭의대)	장기홍(아주의대)	장석준(아주의대)	배재만(건국의대)	이종민(경희의대)	정대훈(인제의대)	박태철(가톨릭의대)	이택상(서울의대)	임경택(관동의대)	남은지(연세의대)	김정식(순천향의대)
남계현(순천향의대)	유상옐(원자력의학원)	조치흠(계명의대)	허수영(가톨릭의대)	이광범(가천의대)	이택상(서울의대)	주웅(이화의대)	심재철(동국의대)	임명철(국립암센터)	전섭(순천향의대)	이정원(성균관의대)	성석주(차의과대학)
유상영(원자력의학원)	이재관(고려의대)			조치흠(계명의대)	임경택(관동의대)	허수영(가톨릭의대)	윤만수(부산의대)	주웅(이화의대)	정민형(경희의대)	이천준(고신의대)	송은섭(인하의대)
이재관(고려의대)	이찬(차의과대학)				장기홍(아주의대)			주원덕(울산의대)	주원덕(울산의대)	이철민(인제의대)	최석철(원자력의학원)
이철민(인제의대)					주웅(이화의대)			최석철(원자력의학원)		정대훈(인제의대)	
조치흠(계명의대)											

소식지소위원회
김병기(성균관의대)
이정원(성균관의대)
장석준(아주의대)
주원덕(울산의대)
한승수(중앙의대)

이 사

강순범(서울의대)	김원규(고신의대)	류기성(가톨릭의대)	박충학(단국의대)	윤만수(부산의대)	이헌영(청화병원)
강재성(고려의대)	김재욱(관동의대)	목정은(관동의대)	배덕수(성균관의대)	이경희(원자력의학원)	이효표(건국의대)
고민환(영남의대)	김종덕(전북의대)	문 형(한양의대)	배도환(중앙의대)	이규완(고려의대)	장윤석(마리아병원)
김경태(한양의대)	김학순(충북의대)	박노현(서울의대)	배동한(순천향의대)	이선경(경희의대)	전종수(관동의대)
김기태(인제의대)	김현찬(인제의대)	박상윤(국립암센터)	배석년(가톨릭의대)	이승호(영남의대)	조삼현(한양의대)
김성한(고신의대)	김현호(동아의대)	인서(성균관의대)	서영욱(계명의대)	이윤순(경북의대)	조영래(경북의대)
김수녕(건국의대)	남궁성은(가톨릭의대)	박일수(경북의대)	송용상(서울의대)	이응수(인제의대)	차순도(계명의대)
김승조(차의과대학)	남상륜(충남의대)	박종섭(가톨릭의대)	심재욱(제일병원)	이의돈(원자력의학원)	최호선(전남의대)
김승철(이화의대)	남계현(순천향의대)	박종택(차의과대학)	안웅식(가톨릭의대)	이준모(가톨릭의대)	한세준(조선의대)
김영탁(울산의대)	남주현(울산의대)	박찬규(연세의대)	오병찬(전북의대)	이진용(을지의대)	허주엽(경희의대)
김영태(연세의대)	노흥태(충남의대)	박찬용(가천의대)	유희석(아주의대)	이태성(대구가톨릭의대)	황윤영(울산보람병원)